東大新聞

發行人 李智冠
編輯人 李璜雨
印刷人 李揆行
主幹 林英正
編輯局長 申寬浩
編輯長 盧建煥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715
서울시 中區筆洞3街26
電話交換 (2)8131~9
本社直通 (2)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780—350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전화 경주 2—0131~6
每週 火曜日 發行

재향군인회관건물및부지 매입

지난20일 총 36억7천5백만원에 계약

재향군인회관건물및 부지 매입에 따른 대금지불이 지난20일 최종완결됐다.

이번 재향군인회관건물및 부지(서울시 중구장충동2가 197-7소재, 대지면적 2,455평, 건평599평) 매입은 캠퍼스공간의 확충을 통한 교세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난해 6월부터 학교당국이 이 건물의 매입작업을 벌여와 지난해12월에는 서울시와 매입에 따른 원칙적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다.

이 건물의 매입대금은 총 36억7천5백만원으로 지난 20일 서울시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 모든 행정절차를 끝마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건물입주식 당일부터 시작되는데 이은 내달6일 개교기념일에 건물내 일부시설의 용도변경 작업과 학교와 기존 건물사이를 잇는 연결보공사등 이와함께 이 건물의 활용을 벌이게 된다.

한편 총무처는 전통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건물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무처는 활용방안으로 기존의 건물에 강의실이나 교수연구실 또는 일부 부서의 이전확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4·19계승하여 민주국회 쟁취」

「민정당 집권분쇄 特委」발족식 가져

都心서 연합시위 참여하기도

총학주최로 지난19일 열려

「4·19혁명정신 계승과 광주학살·부정비리 책임자처단및 민정당집권분쇄를 위한 특별위원회」발족식」이 총학주최로 지난19일 오후1시 최재성(불교4) 이호영(국문4) 총학 정·부회장, 신미숙(일문4) 총여학생회장등을 비롯 3백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4·19기념식과 특위발족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I부 기념식은 김태현(철학4) 총학기획부장 사회로 4·19영령등에 대한 묵념, 기념사, 4·19전개과정과 정치경제적상황에 대한 설명, 4·19헌가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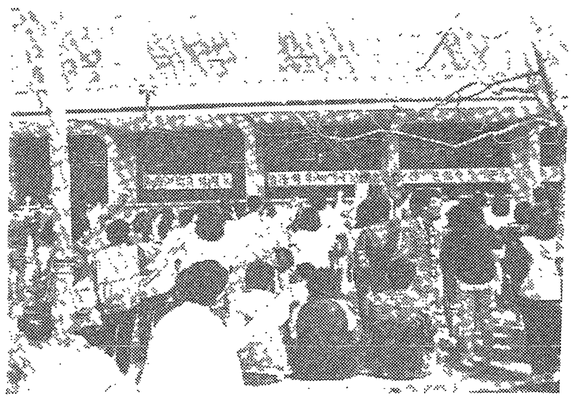
이날 최재성 총학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서가신 4월의 영령들을 기리며, 가신 이들의 피맺힌 함성을 계승하여 한반도의 자주민주통일을 앞당기자』고 주장했다.

II부는 특위 위원장으로 잠정선임된 윤남진(경환4) 총학 사회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尹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월혁명이념을 계승해 민주국회쟁취하기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전제한뒤 『민주국회를 쟁취하기위해선 모든 학우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행사가 끝난 2시경 학생3백여명은 중문에서 전경의 저지에 맞서 화염병과 돌로 투석전을 벌이며 『4월혁명 계승하여 군사독재 타도하자』『파쇼민정당 몰아내고 민주국회 쟁취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들 학생들은 시위가 끝난후 학교버스3대에 분승, 수유리에 있는 4·19탑을 찾아 헌화·참배한 뒤 종로3가의 남면분등 시내일원에서 연합시위를 벌이기도했다.

또 지난 25일 오후1시에는 「노태우일당처단과 총선승리를 위한 범동악 결의대회」를 총학주최로 도서관 앞에서 가졌다.



「4·19혁명정신계승과 광주학살, 부정비리 책임자처단및 민정당집권분쇄를위한 특별위원회발족식」이 지난 19일 도서관앞에서 총학주최로 열렸다.

李총장, 2억원 기탁

「교직원 해외연수 기금」으로

李鼎冠총장은 「교직원 해외파견연수 특별기금」으로 2억원을 지난 4일 학술부에 기탁했다.

이 해외파견연수기금은 교수및 직원의 학구의욕고취와 학교행정의 효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지난 82년 2억원을 母基金으로 적립, 그 年利로써 5년이상 근속한 교원과 직원중에서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해 온 것으로, 李총장의 이번 희사금 기탁에 따라 이 「특별기금」의 母基金은 4억원에 달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李총장이 기탁한 금액은 신도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시주받은 기부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관공청회

慶州총학주최

경주 캠퍼스 총학생회는 도서관 시설 보완과 소음방지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지난 19일 오후 5시 학생과장·관재과장·열람과장및 학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4층 시청각실에서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서관의 면학분위기 쇄신과 시설보완에 대해 학생들의 열띤 토의가 있었는데 의자밑 롱설치및 조명개선등의 시설보완과 야구장과 테니스장 이전등의 주변환경개선문제가 각각 제기되었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시설보완은 즉각 개선하고 소음방지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연영과 졸업공연

「내아들…」

예술대 연극영화학과 제6회 졸업공연및, 예술대학신설기념행사의 일환인 「내아들을 위하여」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일주일간 본교 연극영화학과 스튜디오에서 공연된다.

이번에 공연되는 「내아들을 위하여」는 아서밀러의 작품을 극화, 同科 안민수 교수의 지도로 4학년인 임정식·이경택군이 각각 연출과 기획을 맡았다.

민주후보 단일화 촉구

「서건추」건설 대표자회의서

「민주진영 단일후보로 독재민정당 패퇴를위한 지역대표자회의」가 본교 「서건추」건설을 위한 지역 민주후보 연석회의 및 촉구대회가 지난 22일 오후1시 본교를비롯한 동덕여대, 덕성여대 학생 2백여명이 참가한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총학생회 윤평현(독문3) 문화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행사에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부정비리 폭로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남북 공동올림픽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통민당, 평민당, 민주당 등의 각각 후보 단일화에 관한 일장을 밝혔으나 내용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학생들은 『민주진영 단일후보로 민주국회 쟁취하자』고 구호를 외치며 민주후보 연석회의를 촉구했다.

집행유예로 석방

慶州 부총학생회장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경주캠퍼스 총무학생회장 방일성(경제4)군이 지난25일 오전10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오후 6시 내남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지난18일 열렸던 2차공판에서 검사는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구형했는데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행위는 범죄로 구성되나 피고가 학생인점을 감안해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이날 총학생회장 강진수(법학4)군을 비롯한 학생4백여명은 방청을 한후 학교까지 평화적가두시위를 하며 돌아와 녹야원에서 집회를 가진후 해산했다.

고시동정

△金興培(농학과)=「아시아 각자협의회」참석차 다음달 20일 渡日.

△金翔圭(토목공학과)=「토목공학 간사회의」참석차 오는 6월15일 중국으로 출국.

職員人事

△安錫浩=免총무과 △대리=관재과 △주임=대학 △齊=취업과 △大興=교무과 △李命=교무과 △朴龍=교무과 △權=교무과 △成日=교무과 △生命=교무과 △崔正=교무과 △吳命=교무과 △金命=교무과 △朴海=교무과 △文在=교무과 △崔命=교무과 △李命=교무과 △崔命=교무과 △崔命=교무과 △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자

社說

전임 대통령부인 전두환·이순자씨와 관련된 권력형 부정부패의 혐의사실이 일반국민에게 밝혀지자 이들을 소환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16일 「반민정당 총선투쟁 민주연합」과 민주·평민·한겨레·민중의당 대표들은 이들을 소환·조사키위한 「백만인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한바 있으며 이 서명작업이 본교를 비롯한 각대학및 전국 곳곳에서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이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전·이씨부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의 혐의내용을 살펴보면 전씨의 형 基煥씨는 경찰간부의 인사권에 관여하고, 동생 敬煥씨는 새마을운동본부와 관련된 많은 비리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 李씨의 부친 李圭東씨는 명성사건의 동생 圭光씨는 지난85년2월 한국양회공업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중부고속도로 3천억 공사와 88고속도로 포장공사를 시멘트포장공법으로 낙착시켰으며, 처제 張玲子사건당시 재무장관 李承潤과도 결탁을 했다는 것이다. 또 李씨의 첫째 여동생 信子씨의 남편 홍순부씨는 5공화국출범이후 철도공안원에서 동아그룹의 한회사 장이되어 원천 9·10호기 토목공사를 동아그룹에서 수주받는데 기여했으며, 李씨의 남동생 昌錫씨는 포철에 납품하는 동불주식회사 사장이 되어 2년만에 5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급성장을 했는가하면 서울시에 컴퓨터를 납품하는 동일데이터시스템과 교통신호등을 제작하는 참원강영을 2년만에 2백억원규모로 신장시켰다는 내용등이다.

이처럼 이들의 혐의사실이 엄청난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5공화국의 대형 부정사건마다 이들의 관련설이 나오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행위가 당시권력자의 뒷배경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無所不爲의 권력으로부터 비호 내지는 묵인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들의 비리사실을 全氏부부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꼭, 全氏부부의 측근에서 이루어진 부정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및 책임추궁은 결코 이들부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하다해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 부부의 비리사실과 그측근들의 부정행위의 내용은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 법이 힘없고 돈없고 약한자에게만 불리하고, 힘있고 돈많고 고위직에 있는 者에게만 유리한 사회풍토는 근절돼야 한다.

재향군인회관의 매입

혜화문입구 재향군인회관의 매입이 이루어졌다. 캠퍼스 확충면에서 20여년동안 그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숙원사업이 성취된 것이다.

동국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셈이다.

대학은 문화창조를 위한 기초원동력 그리고 사립대학이 안고 있는 재정적 압박등 어려움이 한두가지 아니다.

이와같은 복합적 상황이 교지확장의 내외적인 요인이되어 때마침 재향군인회관의 강남이전을 계기로 학교당국은 대지 2,454평 건물643평을 매입한것이다.

잘알다시피 동국학원은 서울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여 교통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문화적 교육적인 유관기관 역시 지척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장점을 십분이용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중심적 正座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正座에서 주변영역을 더욱 확산시켜야 할 중심의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은 급조하는 신파가 아니다. 대학도 역사의 연륜이 문화창조 의식으로 구축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잠깐한 시간과 각고한 의지가 확장되어야 한다.

이제 이 향군회관의 매입으로 좁은 공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활용에 있어서는 졸속적인생각이나 임시방편적인편법을지양해야 할것이다.

먼저 이건물은 향군회원의 편의에 의하여 지어진 건물로서 대학의 교육용이 될수없다는 전제아래 그 임시용도를 연부하여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용도의 건물을 신축할때는 동국대학교의 전위상과 교통상을 참고하여야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자리에는 東國文化를 참조하는 제3의 대학이 건설되어야하며 대학과국민을 함께계도하고 발전시킬수 있는통합적이고 다목적인 문화관이들어서야 할것으로 본다.

대학은 날로 발전하여야 한다. 질적향상은 양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사립대학이 안고있는 무거운 제정압박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심의 교육부지를 확장한 학교당국에 격려를 보내며 계속적으로 대학발전에 관심을 갖고 또 질적향상에도 진력해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폭력범죄 증가의 심층분석

時事論壇

李 相 賢

<사회과학대학교수·형사정책>

Ⅰ、문제의 제기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예갈도니 공포의 인간흉기니 하는 새로운 범죄용어까지 생겨났고 범죄의 특징이 흉악화, 집단화, 연소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범죄를 반복 상습화 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우려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도덕적 가치관의 몰락 때문인지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전혀 죄의식이나 반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고야말로 가공할 현상이 아닐수 없다.

이와같은 흉악한 범죄들이 난무하는 현실을 볼때 새삼 인간의 범죄성을 재조명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오늘날 강력범죄는 옛날처럼 빈곤이나 결손가족이 범죄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이 어렵지 않은 가정출신자가 증가하고 또 옛날 같이 피해자와의 인간 관계가 있거나 사정을 잘아는 그런 관계 범행이 아니라 무관한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폭력범죄나 흉악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물질적인 것이 흉악범죄의 온상이 되고 따라서 흉악범죄가 증가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S.Freud의 정신분석 일장에서 지적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인 원욕(id)의 충동이 강력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사회의 현실적인 병리가 그원인이라고 이해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범죄동기를 알아 보기로 하겠다.

Ⅱ、사회병리적 측면에서의 諸조명

우리사회의 범죄양상은 어떤 사회적 기반위에서 범죄가 성숙되고 있는가 이것을 사회병리적 측면에서 제 조명해 보기로 하겠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과도기적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충동·격정·억압된 사상·감정및 생활에 이중구조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물질문명의 동경, 과도한 경쟁의식, 급격한 생활양식의 변화등에 비하여 갈정이나 의식구조는 전근대적인 것이 남아있다. 그것은 생산적인 변형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한편 정서적 불안전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생활속에서 살아온 농촌출신의 청년에게는 도시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것이다.

즉 급전만능주의, 형식적인 인간관계, 소속감의 결여, 생활의 위협 등으로 인하여 욕구불만이 커지고 정서부족 경향이 높아 지게된다. 그 결과 범죄성향이 자극되어 한탕해서 팔자를 고쳐보자는 강박심리가 작용하여 곧 흉악범죄와 결부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수반하여 극도의 늘불주의와 물질주의 찬양은 낙후된 인간에게는 격렬한 적대감정을 나타내게 된다. 사람은 공동운명체속에서의 고난은 잘 견딜수 있으나, 빈부의 격차, 고독감과 열등감은 참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태가 욕구에 기인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일으킬때 목적이 저지당하면 결과적으로 욕구충족이 범죄와 결부되어 진다.

Ⅲ、사회화와 범죄학습

가족 기능의 상실이나 불안전한 상태는 범죄성숙과정의 형성, 정착장면을 성숙케하는 것이다. 또한 통제기능이 너무 강한것은 어린이들의 주체성이나 인격을 무시하고 보호자의 일방적인 강압이나 욕구충족이 너무 높은 경우이다. 이경우는 자아상실이나 가치학습의 결직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보호기능이 강한것은 지나친 사랑, 부한 상징적인 모델영향이다. TV의 출현은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광범위한 학습을 제공하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일상생활속에서 잔혹한 폭력행위를 거의 보지못한데 비하여,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안락한 그들의 가정에서도 TV에 의한 모델로부터 갖은 폭력행위를 배울수 있는 무제한의 기회가 있다.

TV는 폭력행위를 가르치는 효과적인 개인교수이다. 청소년들에게 폭력이나 비폭력의 장면을 반복해서보여 주므로 폭력의 형태를 현성시키며 일상생활에서 폭력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교도소 소년원등은 집단적범죄교육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곳에서 범죄기술을 세련시키고 범죄행위를 습득하게 되기 쉽다.

Ⅳ、살인자의 심리

어떤 동물학자의 한 연구를 보면 진화론적으로 어떤 수준이하의 종에서는 동종의 동료를 상해하거나 살해하는 일이 없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동종간의 살인을 매우 일반적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Colin Wilso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살인은 이제 유산상속이든가 정부가 상대하는 여자의 남편을 처치한다거나 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동기는 더욱 복잡해지고 어떤 경우엔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17세기의 사회학자 였다면 사회적 빈곤이 소멸되었을 때 살인이라는 범죄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이다.

빈곤이 점차적으로 근절함에 따라 살인발생률은 상승한다. 인간을 미워하게 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유기체(organism)나 정신의 평형에 손상을 받으므로서 상해와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움이 외부인든 내부인든 인간은 손상된 평형으로부터 원래평형상태로 회복하려는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려는 지속적인 조건들 때문에 원래 평형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방해를 받거나 단절되게되면 무한한 증오가 생긴다.

그러므로 분노 하기도 하고 극한 공격적 양상으로 행동화되어 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체나 정신적인 평형만족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

韓醫學을 어떻게 볼것인가

한의학의 과학성 고찰

陰陽五行說을 토대로 학문성립

신체를 유기·종합적으로 분석해 치료

非과학적이란 비판은 이해부족에 기인해

요즈음 韓醫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기존의 한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던 풍토가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다. 이에 한의학의 기본원리가 무엇인지를 과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편집자註>

安 昌 範
<한의과대교수·침구학>

Ⅰ、序論

근대서양의학은 자연과학사상을 기초로하여 신체의 어느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찾아내 그것을 치료할 때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를 생각한다. 또 어떤 약에 어떤 성분이 있으며 신체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를 추구한다.

한편 동양의학은 자연철학사상을 토대로 하여 성립되었기에 질병에 대한 사고방법과 이의 치료법은 서양의학과는 상당히 다르게 되어있다.

즉 음양·오행이란 관점에서 질병을 관찰하며, 치료법은 외부에서 보아 알수 있는 증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체전체를 회복하기 위한 약물요법과 섬련치료를 시행한다. 다시말하면 특정기관을 포함한 신체 전체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다.

한의학의 근본사상은 철학적인 자연관조법인 음양 오행설이 그대로 적용 되었다고 생각할 수있다. 현대인들 중에는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 오행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한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논자는 이에 오행학설의 과학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1、陰陽觀

가、자연철학으로서의 陰陽

중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자연철학은 易으로 대표된다. 그것은 陰과 陽의 二元論을통해 자연현상의 오묘한 이치를 설명한 철학사상이다. 즉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천지만물은 모두 陰陽 두면이 생하고 成하는것이다. 예를들면 하늘이 양이면 땅은 음이고 해가 양일때 달은 음이다. 낮·밝음·높음·남자 등은 양에 속하고 이것의 대칭되는 사물 즉 밤·어둠·낮음·여자등은 음에 속한다.

이런식으로 천지의 모든 현상과 모든 사물을 陰陽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易의 원리다. 아울러 음양의 배합으로 모든것이 이루어지고, 음양의 流轉으로 모든것이 변화하며 陰陽에는 절대적인 음양이 없으며 음중에도 양이 있고 양중에도 음이 있는 것이다.

남녀가 있으므로 인간의 새 생명이 탄생할수 있는것같이 음양의 유전으로 밤과 낮이 교체하고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과 천지사이의 삼라만상이 변화된다.

한의학 최고경전인 「黃帝 內經」에서는 「陰陽은 天地의 道이며, 萬物의 綱紀이며 變化의 父母이다」이라고 하여 陰陽의 對立性 법칙으로 우주의 운행과 만물의 생존 및 진화과정 (발생 성장 쇠퇴 소멸)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陰陽論은 철학적인 자연관조법 특히 二元論的 인식법이 기초개념으로 되며 二元論的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을 관찰하는데 두 방면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하나 종국에 있어서는 하나의 대상에 歸一되는 까닭으로 二元論的 一元論 或 一元的二元論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와같은 대상관이 바로 陰陽思想이다.

나、人體生理와 陰陽

일찌기 우주변화의 원리를 음양에서 찾았듯이 「人身小宇宙」이라고 생각했으며 인체의 변화 역시 음양원리에 입각하여 관찰할 수있다. 예를 들면, 五臟(肝·心·脾·肺·腎)이 음이면, 六腑(膽·小腸·胃·大腸·膀胱)는 양이고, 血·腹部·冷·裏部·肉體등은 음에 속하고 氣·背部·熱·表部·精神등은 양에 속한다. 음양은 상호대립하며 상호통일한다. 상호간에 함진과 억압이라는 대립을 나타내면서도 그 과정중에 평형을 유지한다. 음양의 평형은 건강을 말하며 음양의 生調는 질병을 유발한다. 인체생명력의 발현은 대표적으로 기능(陽)과 구조(陰)로 관찰할 수있다.

기능은 정신현상과 생명력을 의미하는 神과 신체의 생리활동과 외부활동을 총괄하는 生命에너지인 氣로 나눌 수있고, 구조는 혈액과 생체물질로 확대된 개념을 의미하는 血과, 형성의 기본단위인 精으로나 눌수 있다. 즉 인간개체는 精·神·氣·血의 4개념으로 구성적 관점에서 분석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력이 기능과 구조로 분화하는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陽化氣 陰成形으로 된다. 생명력은 陽化(異化作用)하는 세력과 陰化(同化作用)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지고 양화하는 세력은 기능으로 음화하는 세력은 구조로 나타난다.

또 생명력은 精·神·氣·血의 동적이고 일체적인 결합을 통하여 보다더 균형있는 통일체가 되어 나타나므로 여기에는 음양의 대상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게되며 이에 오행학설의 응용이 필요하게 된다.

2、五行學說

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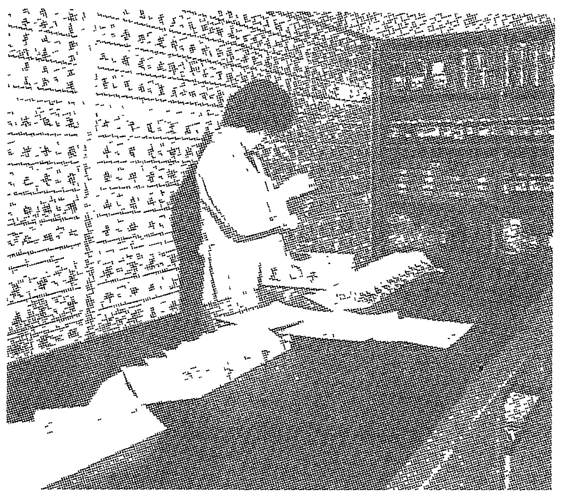
오행학설은 자연계의 장기적 관찰을 통한 분석을 근거로하여 모든 사물의 변화규율과 이의 내재은 모든 사물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두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나、運氣論의 五行

운기론은 천체운행(태양계의 운행)에 따르는 기상의 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연현상에 근거하고 있다. 온대지방의 일년기후는 춘하추동의 4계절에다가 우기가 많은 장하를 더 분별하여 5절조로 구분된다. 이 5절조가 나타내는 작용을 분석하면 봄에는 만물이 발생하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장하에는 버섯 벌레등이 化生하고 부패는 신생물로 통합되고, 가을에는 만물이 수축하고, 겨울에는 봄에 발생할 기운을 저장하는 상태가 되므로 五節條(五時)의 작용을 발생에서 生育, 성장에서 長育, 化生에서 化育, 수축에서 收育, 저장에서 藏을 각각 따서 生氣 長氣 化氣 收氣 藏氣가 되어 生長化收藏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생기를 발생력, 장기를 추진력, 화기를 통합력, 수기를 억제력, 장기를 심정력으로 말할수 있으며 이 5종력을 5행의 木火土金水로 나타낸 것이 5운이다. 또 자연계의 5시에는 春溫 夏暑 長夏濕 秋清 冬寒한 기온의 분류만으로는 복잡한 기후변화를 관찰할 수없다. 이 복잡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후요인에는 風·寒·暑·濕·燥·火이며, 온도의 변화는 寒과 熱로 나타나고 습도의 변화는 濕과 燥로 나타나고, 風度의 변화는 풍세의 강약 즉 동요의 강약으로서 나타나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온도 습도 풍도가 된다. 인체내부에서도 외부의 六氣인 자극에 상응하여 에너지(風度) 溫熱(溫度) 水分(濕度)의 교환에 의하여 각기 특유한 자극을 받아 생명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종합하면, 風은 운동이상과 공기의 유동상태인 기상의 風을 포함한 개념으로 生體內의 액체이동과 신경전달등의 작용이라고 생각되며, 寒과 열은 온도의 변화현상으로 체온의 변화상태와 기상의 寒熱을 합한 개념이고, 燥와 濕은 濕度의 증감현상으로 體內體液의 증감및 이동 그리고 기상의 濕·燥를 합한 개념이다.

이에 刺戟因子로서의 작용을 보면, 風은 動作用의 발생기능, 熱·火는 열작용, 濕은 生化作用의 統合기능, 燥는 收縮作用의 억제기능 寒은 의결작용의 沈靜機能으로 분석되어 각각 앞서 말한 五種機能의 대사과정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관찰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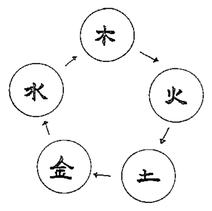


한의학을 비롯한 동양의학은 자연철학사상을 바탕으로하고 있기때문에 서양의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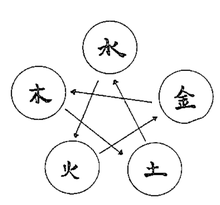
Ⅲ、結語

이상을 요약하면 陰陽의 관찰로서 人體의 기본구조가 精·氣·神·血의 四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성요소적 측면에서의 생명현상을 알 수 있었으며 五行의 관점으로서는 各臟腑를 해부 생리학적 관찰로 분석종합하는 五種기능적측면에서의 생명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六氣의 현상으로서 알 수 있었던 것은 五種기능은 內外의 특유한 자극을 받아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대사적 측면에서의 생명현상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생체는 四種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六種의 內外자극에 의하여 五種의 기능을 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에서의 여부대상은 生命體 또는 生命力이며 이 생명체가 나타내는 현상분석을 陽五行 六氣論的으로 체계화한 醫學이 韓醫學이라고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그림 2】

다、人體의 五行

우주의 변화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간이 우주의 5종기에 적응하여 이기능은 인간의 기본구성요인 精 神 氣 血의 동적이고 입체적인 결합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五種기능은 우주의 발생력에 의하여 발생기능, 우주의 추진력에 의하여 추진기능, 우주의 통합력에 의하여 통합기능, 우주의 억제력에 의하여 억제기능, 우주의 침정력에 의하여 침정기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인체의 부위들을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유기기관으로 보면 발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膽·節·筋·目등을 모두 같은 종류에 포함하며, 心에서 추진기능을 발생하며 이의 종류로 小腸·血脈·舌등을 同類에 귀속시키고, 脾에는 통합기능을 담당하며 이의 기관으로 胃肌肉·口唇·消化腺을 포함하며, 폐에서 억제기능을 발견하며 이의 기관으로 대장·鼻·皮毛등을 포함하며, 腎에서 沈靜기능을 발견하며 이의 기관으로 방광·골수·두발·耳등이 동계에 포함된다. 또 5종기능간의 상호관계에도 상생관계와 상극관계가 나타나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표를 만들어 보면 「도표2」와 같이 된다.

또한 간에서의 발생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膽·節·筋·目등을 포함하며 이의 종류로 小腸·血脈·舌등을 同類에 귀속시키고, 脾에는 통합기능을 담당하며 이의 기관으로 胃肌肉·口唇·消化腺을 포함하며, 폐에서 억제기능을 발견하며 이의 기관으로 대장·鼻·皮毛등을 포함하며, 腎에서 沈靜기능을 발견하며 이의 기관으로 방광·골수·두발·耳등이 동계에 포함된다. 또 5종기능간의 상호관계에도 상생관계와 상극관계가 나타나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표를 만들어 보면 「도표2」와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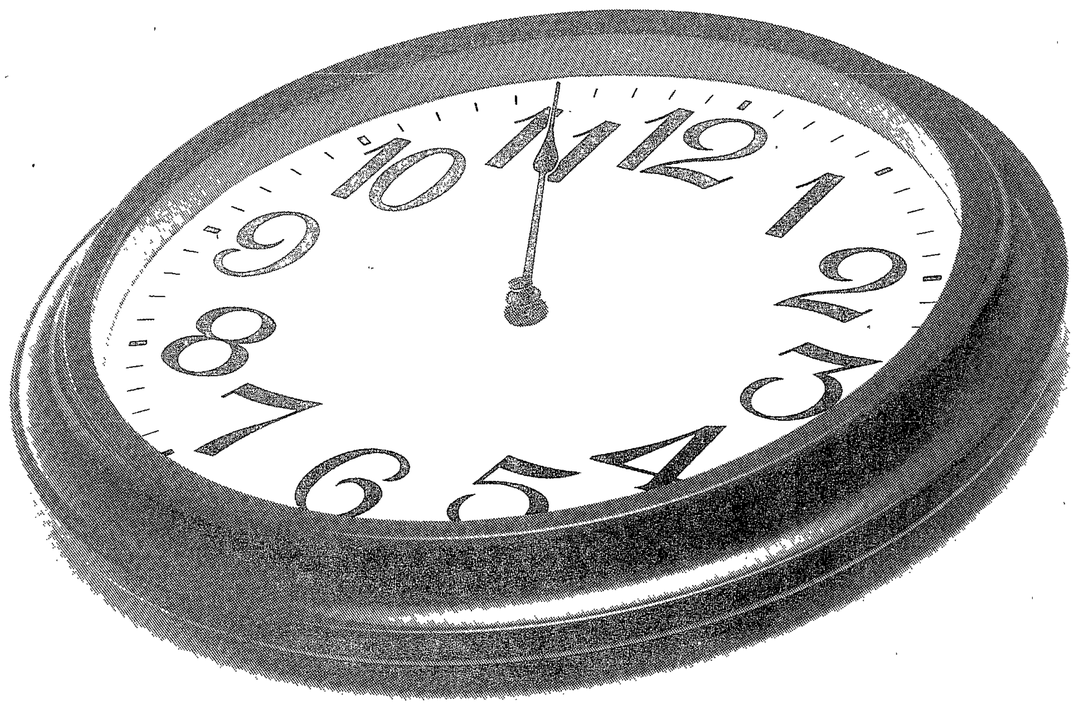
【도표1】

五行	木	火	土	金	水
氣條	風	暑(火)	濕	燥	寒
季節	春	夏	長夏	秋	冬
發展過程	生	長	化	收	藏
方位	東	南	中央	西	北
五味	酸	苦	甘	辛	鹹
五色	青	赤	黃	白	黑
五音	角	徵	宮	商	羽

【도표2】

五行	木	火	土	金	水
臟	肝	心	脾	肺	腎
腑	膽	小腸	胃	大腸	膀胱
五官	目	舌	口	鼻	耳
形體	筋節	白脈	肌肉	皮毛	骨髓
情志	怒	喜	思	悲	恐
五聲	呼	笑	歌	哭	呻
五種機能	發生力	推進力	統合力	抑制力	沈靜力
生命活動	運動	成長	營養	呼吸	排泄
類	發生機能系	推進機能系	統合機能系	抑制機能系	沈靜機能系

"55분만 있읍니다"



쌍용의 김과장에게는
55분만 있읍니다.
그는 고객과의 약속을
언제나 5분 먼저
지키기 때문입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우리네 사회생활———
언제부턴가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읍니다.

조그마한 틈새로부터
커다란 둑이 무너지듯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소한 일 하나 하나에서부터
불신의 벽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믿음있는 기업을 가꾸어 가는
쌍용의 시계에는
언제나 55분만 있읍니다.

SSANG YONG 쌍용

미·소 개입이 이데올로기 통합의 장애요인

——지배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진단하며

노 대 명
<인하大·석사과정졸>

◇글싣는 차례

1) 분단상황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대립양상
2)지배 이데올로기의 사적고찰上·下
3)반공 이데올로기의 계급지배적성격
4)제국주의의 민족지배 이데올로기
5)민중 이데올로기의 창출과 전망
6)시리즈를 마치며

Ⅰ、들어가는 글

1980년이후 남한사회는 급격한 변혁을 체험하였다。그것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주장되는 사회전반에 걸친 변혁의 요구였다。그리고 이러한 변혁의 요구는 해방이후 남한의 자본주의화과정에서 발생한 계급적 갈등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다。이에 따라 사회변혁을 추진하는 민주화운동이 보다 광범위하게 조직화되었고 이러한 실천운동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데올로기가 요구되었다。즉 사회변혁의 전망에 있어 그 과학적 토대를 제공할 혁신이데올로기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혁신이데올로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그 결과 남한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본격화되었다。

물론 남한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며 反共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로 행세하여 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이기는 하다。그러나 민족분단이 미국과 소련의 분점이라는 外因과 그에 예속적인 국가권력의 형성이라는 內因 모두에 기인한다고 볼때 민족통일에 대한 논의는 일찌기 자본주의체제와 그 국가권력의 자기전개논리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어지는 이데올로기論爭은 긍정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그리고 민족통일의 문제가 체제의 문제와 관련되어있는 상황하에서 민족과 계급의 문제와 같은 통일을 위한 실천적 벌주설정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Ⅱ、分斷의 이데올로기적 의미

민족분단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근본적 모순이다。따라서 그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그러나 그러한 의미를 이데올로적 의미란 말로 포괄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즉 분단이 이후의 한국정치사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먼저 이데올로기라는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해야 한다。이데올로기란 가장 넓은 의미로 볼 때 토대를 반영하는 사회적 제 의식형태를 의미하며 이것은 정치·법률·문화등의 영역을 총칭한다。그리고 좁은 의미로 볼 때 이데올로기란 단순히 토대를 반영하는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토대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선행조건으로 이해시키려는 체계적 견해이다。여기서 사용하는 이데올로기란 대개의 경우 후자를 의미한다。그리고 후자의 정의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데올로기란 계급의 발생과 함께 형성된 계급지배의 기구인 국가 및 법과 같이 인간을 지배하는 힘을 말하고, 지배이데올로기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이듯 사회내의 계급대립을 반영한다。따라서 이데올로기란 사상의 이중구조라는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지배이데올로기와 혁명이데올로기 혹은 저항이데올로기로의 대립과 통일의 과정을 반복한다。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對立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西歐의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다。즉 西歐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란 부르조아革命에 의해 成立된 國家權力이 부르조아階級의 헤게모니를 토대로 형성한 지배이데올로기가 기존의 체제를 거부하는 혁명이데올로기와 대립하는 것을 뜻한다。그러나 우리민족의 경우는 분단을 통해 서로 다른 국가로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하고 있고, 아울러 국가내적으로도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겪고있다。따라서 우리민족의 경우는 민족적 통일이란 과제와 이데올로기대립의 해소란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해방이후 분단이 가져다준 의미는 이데올로기의 금기시였고 서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확립하기위한 폐쇄성의 강화였다。따라서 80년이후 남한내에서 재개된 이데올로기논쟁은 긍정적으로 이해되어 진다。

그러면 분단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의미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민족분단이란 해방직후의 정치사가 일증하는 바와 같이 미국을 필두로 하는 자본주의체제와 소련을 필두로 하는 사회주의체제간의 대립이라는 외인과 미군정과 같은 외세에 의존하여 형성된 국가권력이라는 내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따라서 분단은 자본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혁명이데올로기간의 갈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데올로기對立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그리고 南韓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對立이란 解放直後미군정하에서 형성된 국가권력의 성격을 통해 볼 때 쉽게 이해되어 진다。즉 해방이후 남한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대중적 기반위에 선 혁신정당과 친일파 혹은 독점자본가등을 중심으로한 사랑방정당 사이에서 격렬하게 제기되었다。이는 이후의 사회체제의 선택을 둘러싼 논쟁 이었다。그러나 당시 남한을 점령하고 있던 미군정의 입장은 명백한 반공이데올로기 였다。따라서 대중적 기반이 결여된 후자에게로 국가권력이 이양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로서 혁신이데올로기의 저지를 목표로 반공이데올로기를 수용하였다。그리고 이것은 6·25를 지나면서 더욱 공고화되었다。그러나 결국 남한사회가 자본주의화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이미 예측될 수 있었다。따라서 분단은 이미 현대사회의이데올로기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Ⅲ、南韓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對立過程

1、解放直後의 이데올로기의 對立

우리민족에게 있어 이데올로기논쟁은 기존 체제의 옹호 또는 변혁의 논리로서뿐만 아니라 日帝로 부터의 민족해방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진행되기도 하였다。물론 그것은 일제하의 민족주의운동이라는 범주 속에 포함되어지며 아울러 한반도의 사회변화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있는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가장 긴박한 민족간의 모순의 논리에 귀결되었다 하더라도 러시아혁명이후 전개된 민족해방의 논리와 이러한 논리에따라 활동하였던 독립운동가들의 존재는 결코 간과될수 없는 것이다。이들의 존재는 해방이후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데올로기의 외인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즉 일제하에서 존재하였던 많은 사상범들에 대한 자료는 해방이후의 이데올로기논쟁이 외세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입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이는 혁신이데올로기의 경우 보다 잘 일증되어질 수 있다。즉 제국주의국가에 의한 식민지상태에서 민족적 해방을 이루고 아울러 봉건적 구속을 타파한다는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물론 그 실천적 주체가 「인텔리겐챤」였다는 점에는 그 시대적 한계가 있다。그러나 이는 해방이후의 정치사에 나타났던 대중의 정치참여를 볼 때 쉽게 이해되어 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소수의 혁명가나 선동가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해방직후 민족적 통일의 문제와 함께 가장 긴급한 당면과제였다。이러한 갈등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남노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진영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진영사이에서 표출되었다。이중 前者는 신식사회건설에 앞서 사회내에 잔재하는 봉건적 요소를 일소하고 아울러 계급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 혁신이데올로기였다。반면 후자는 그 구성에 있어 독점자본가, 혹은 친일파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지상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결국 그 본질에 있어 급격한 사회변혁에 반대하고 아울러 그 핵심을 피해가려는 의도였다。한민당의 당시 정책강령과 그 행태를 연구하면 그 본질은 분명하게 드러난다。즉 농지개혁에 대한 태도,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태도 그리고 적산의 불하와 관련된 비리등은 그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준다。

그리고 해방직후에서 6·25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이데올로기의 첨예화된 대립양상을 나타낸다。즉 학병동맹사건과 같은 예

우리 민족은 분단을 통해 서로 다른 사회로써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하고있고, 국가내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겪고있다。

하고자 하였고, 이는 이후의 정치사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한미동맹관계의 본질이었다。

이처럼 반공논리가 지배이데올로기화함에 따라 6·25이후 남한사회에는 미국의 매카시즘 못지않는 사회풍조가 조성되었다。이것은 국가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제집단 모두에게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것이었다。

특히 6·25를 통해 급속히 팽창된 군부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그 존립의 대명제로 삼게 되었다。아울러 당시의 사회일반에 비해 근대화되었던 군부는 이후의 정치, 경제영역에 현저하게 참여함으로서 한국정치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한은 본래 그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였고 이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옹호논리로서 서구로부터 수용한 것이었다。그러나 민주주의란 당시의 남한에 있어 이상적인 정치이념이었다。그러므로 그것이 비록 자유민주주의라 하더라도 타락한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일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민주화의 요구는 4·19를 통해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4·19가 가지는 성격은 80년대에 나타난 體制批判的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체제내적인 개혁의 요구였다。그리고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모든 사회운동 또한 이러한 범주내에 머물렀다。그 이유는 유신말기에 이르기까지 체제비판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80년대 이전의 모든 사회운동및 사상논쟁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극히 제한된 형태를 띠었고 국가권력은 자유민주주의조차 용납할 수 없는 기형적인것이었다。

등이 소수의 혁명가나 선동가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해방직후 민족적 통일의 문제와 함께 가장 긴급한 당면과제였다。이러한 갈등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남노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진영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진영사이에서 표출되었다。이중 前者는 신식사회건설에 앞서 사회내에 잔재하는 봉건적 요소를 일소하고 아울러 계급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 혁신이데올로기였다。반면 후자는 그 구성에 있어 독점자본가, 혹은 친일파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지상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결국 그 본질에 있어 급격한 사회변혁에 반대하고 아울러 그 핵심을 피해가려는 의도였다。한민당의 조직적인 정치력이 비록 자유민주주의라 하더라도 타락한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일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민주화의 요구는 4·19를 통해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4·19가 가지는 성격은 80년대에 나타난 體制批判的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체제내적인 개혁의 요구였다。그리고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모든 사회운동 또한 이러한 범주내에 머물렀다。그 이유는 유신말기에 이르기까지 체제비판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80년대 이전의 모든 사회운동및 사상논쟁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극히 제한된 형태를 띠었고 국가권력은 자유민주주의조차 용납할 수 없는 기형적인것이었다。

2、6·25이후 南韓에 있어 支配이데올로기의 形成過程

남한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중단되게된 결정적 계기는 6·25였다。즉 민족분단의 모순과 체제간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무단적 시도로서의 6·25는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남북한 모두에게 이데올로기적 결속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李承晩으로하여금 자신의 정치적 절통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안겨 주었고 이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내에 친미정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하였다。따라서 미국은 남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통해 그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자 하였고, 이는 이후의 정치사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한미동맹관계의 본질이었다。

이처럼 반공논리가 지배이데올로기화함에 따라 6·25이후 남한사회에는 미국의 매카시즘 못지않는 사회풍조가 조성되었다。이것은 국가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제집단 모두에게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것이었다。

특히 6·25를 통해 급속히 팽창된 군부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그 존립의 대명제로 삼게 되었다。아울러 당시의 사회일반에 비해 근대화되었던 군부는 이후의 정치, 경제영역에 현저하게 참여함으로서 한국정치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한은 본래 그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였고 이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옹호논리로서 서구로부터 수용한 것이었다。그러나 민주주의란 당시의 남한에 있어 이상적인 정치이념이었다。그러므로 그것이 비록 자유민주주의라 하더라도 타락한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일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민주화의 요구는 4·19를 통해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4·19가 가지는 성격은 80년대에 나타난 體制批判的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체제내적인 개혁의 요구였다。그리고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모든 사회운동 또한 이러한 범주내에 머물렀다。그 이유는 유신말기에 이르기까지 체제비판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80년대 이전의 모든 사회운동및 사상논쟁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극히 제한된 형태를 띠었고 국가권력은 자유민주주의조차 용납할 수 없는 기형적인것이었다。

통일논의…이념·계급적갈등을 토대로 강화시켜

Ⅳ、1980년이후 南韓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갈등

1、사회적 배경

1980년은 한국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다。그 이유는 독재권력의 재편과정을 통해 형성된 민주화의 요구를 표면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광주민중항쟁과 같은 사건을 통해 민주화를 지향한 사회운동이 비관적으로 반성되었고, 그 방향 또한 다양화되었다는 점에 있다。그리고 이러한 와중에서 이데올로기논쟁이 재개될 수 있었다。물론 이것은 남한이 자본주의화되어가는 와중에서 발생한 사회적 모순의 심화에 기인한다。

즉 독점자본의 육성과 이에 따른 군토대층의 빈곤은 계급간 혹은 계층간의 갈등을 격화시켰고 이갈등은 사회운동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이는 80년이후의 이데올로기논쟁이 사회저변에서부터 도출되었음을 말해준다。이로써 자본주의체제와 국가권력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사회발전의 건설적 방향이 모색되고있다。

2、지배이데올로기의 성격

자본주의체제하의 지배이데올로기는 통상 부르조아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

그러나 2차대전이후 독립한 신생국에 있어서는 자본주의화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 계속적 논란이 있으며 아울러 그 지배이데올로기 또한 서구의 그것과는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그것은 남한에 있어서와 같이 국가권력의 형성이후에 사회경제적 토대가 개편됨에 따라 그 지배이데올로기 또한 자유민주주의일수 없는 경우이다。그러나 남한사회는 분명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 돌입하였다는 점에서 지배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의 당시 미군정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한민당과 좌익세력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했던가 하는 것을 말해주며 반대로 미군정과 우익세력간의 밀착관계를 일증해준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방직후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자본주의진영의 헌병인 미국이라는 외인과 그에 기생하여 형성된 국가권력이라는 내인의 결합에 의해 더욱 촉발되었던 것이다。

2、6·25이후 南韓에 있어 支配이데올로기의 形成過程

남한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중단되게된 결정적 계기는 6·25였다。즉 민족분단의 모순과 체제간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무단적 시도로서의 6·25는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남북한 모두에게 이데올로기적 결속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李承晩으로하여금 자신의 정치적 절통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안겨 주었고 이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내에 친미정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하였다。따라서 미국은 남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통해 그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자 하였고, 이는 이후의 정치사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한미동맹관계의 본질이었다。

이처럼 반공논리가 지배이데올로기화함에 따라 6·25이후 남한사회에는 미국의 매카시즘 못지않는 사회풍조가 조성되었다。이것은 국가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제집단 모두에게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것이었다。

특히 6·25를 통해 급속히 팽창된 군부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그 존립의 대명제로 삼게 되었다。아울러 당시의 사회일반에 비해 근대화되었던 군부는 이후의 정치, 경제영역에 현저하게 참여함으로서 한국정치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한은 본래 그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였고 이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옹호논리로서 서구로부터 수용한 것이었다。그러나 민주주의란 당시의 남한에 있어 이상적인 정치이념이었다。그러므로 그것이 비록 자유민주주의라 하더라도 타락한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일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민주화의 요구는 4·19를 통해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4·19가 가지는 성격은 80년대에 나타난 體制批判的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체제내적인 개혁의 요구였다。그리고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모든 사회운동 또한 이러한 범주내에 머물렀다。그 이유는 유신말기에 이르기까지 체제비판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80년대 이전의 모든 사회운동및 사상논쟁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극히 제한된 형태를 띠었고 국가권력은 자유민주주의조차 용납할 수 없는 기형적인것이었다。

3、혁신이데올로기의 성격

혁신이데올로기 또는 저항이데올로기의 논리는 남한사회, 경제구조가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진영에 예속되어있고 대내적으로는 국가권력이 계급간의 대립과 모순을 용인 또는 조장하고 있다고 갈파한다。

따라서 민족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사회운동과 그 실천적 주체의 벌주설정이 그 주요관심사를 이룬다。하지만 이러한 사회운동의 이론적 토대 또한 중요한 문제로 갑주된다。

이는 85년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구성체 논쟁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남한사회의 성격규정에 있어 주변부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간의 논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둘러싸고 그 특수성에 대한 강조인가, 보편성에 대한 강조인가에서 그 차이가 있다。그러나 결국 이러한 논쟁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전제로 하더라도 이것 모두 체제비판적 이데올로기의 범주안에 포함된다하겠다。

즉 밀리반드(Ralph Miliband.)가 말하는 정치학의 넓은 범주안에 포함되는 것이다。그는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은 갈등의 개념에 토대를 두지만 그 현상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필연적 산물은 무엇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러한 경향은 바로 혁신이데올로기의 공통점인 것이다。결국 혁신이데올로기는 현상화된 갈등의 내적 구조 즉 그 본질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실천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경향을 띄고있다。설령 실천적 주체의 문제가 민중이나 계급이냐는 문제로 논쟁을 계속한다해도 이것은 저항이데올로기인 것이다。

Ⅴ 맺음말

앞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해방이후 남한에 있어서의 대립양상이 몇가지로 설명되어진다。즉 남한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현대세계에서 진행되어 진 혁명인 자본주의지배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혁명이데올로기간의 대립의 소산이다。그리고 이것은 민족분단을 통해 남북이 서로 체제대립을 하고 있다는점에서 민족내적 모순이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통일논의는 그 자체로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사회내의 계급적 갈등이라는 제문제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전개되야 한다。

그리고 해방직후 특히 6·25를 계기로 확립된 반공이데올로기와는 달리 80년대 들어 출현한 혁신이데올로기는 남한사회의 자본주의화과정에서 산출된 것이며 단순한 의랴사조의 모방이 아니라는 점이다。그러므로 80년대들어 발생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양상은 사회와 그 문화의 전영역에 걸쳐 계속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鹿苑

「농성진행중」

▲「농성은 농성으로 저지해라」는 물론 가설이다。농성을 저지하기위한 농성, 다순히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니다。실제로 얼마전에도 이와 유사한 데모반대의 데모를 벌인 일이 있었다。▲농성의 이유와 행위도 여러가지다。생계비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농성, 심신 장애자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고있는 관계자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장애자 농성, 「○○○은 즉각사퇴하라」며 벌이는 시위농성, 심지어 제 끼니에 밥을 안준다며 엄마의 무책임을 나무라는 어느 형제의 단식농성등。혹시, 유아마저 농성을 하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마저 든다。농성을하는 노동자의 잘못은 아니다。그렇다고 데모반대를 위한 데모를 벌였던 주민들을 탓할건 더욱 아니다。왜 농성을 하지않으면 안되는가。이것으로 미뤄본다면 농성은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실마리가 아닌가 억측도 해본다。결국 사회와 세태탓으로 돌린다면 얼추 맞지 않을까 싶다。▲지금 한창 떠들썩한 선거는 더욱 심각하다。이건 문제의 범주를 벗어나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있다。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동네 통·반장선거만도 못하다。당선을 위해 동원되었던 온갖수단과 방법은 이미 바닥나고 몸으로 필사적인 백병전을 벌이고 있다。주먹질, 발길질, 각목으로 몸동이 찜질, 멱살잡기, 헐뜯기, 타당사 기습작전하기, 반칙…반칙…이건 숫제 온갖 기술(?)이 다 나오는 동네 씨름판이다。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출신이다。자신의 당이 과반수이상 당선안되면 8大파란이 일어난다는 예언가, 오직 민주화를 위해서 여당으로 나왔다는 변절가, 민주화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환상가 ▲심정 같아서는 그냥 콱 ××버릴까보다。니네끼리 ×먹고 ×살라며 박수라도 치고싶다。정치는 작태가 아니다。더군다나 총선이 동네씨름판이 되어선 더욱 안될일이다。—지금 전국은 혼란농성 진행중—신께서는 이들을 저지하기 바람。<池>

타자기 선두주자 라이카의 첨단기술이 이룩한 또하나의 개가!
국내최초 20만원대
한·영 겸용 전자타자기
박사님, 교수님 리포트 작성용·학생용(논문 작성용)으로 부담없이 구입 사용할 수 있읍니다。
◎국내 가장 저렴한 가격의 한글·영문 겸용
◎미려하고 다양한 글씨체(명조·고딕·큰글씨·작은글씨 등)
◎미래 지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오타방지 기능
◎초보자도 쉽게 배우고 빠르게 타이핑
SPECIFICATIONS
최대용지폭 : 10, 12" (260m/m)
최대인자폭 : 8 0" (203m/m)
인자속도 : 10CPS (Max)
프린팅피치 : 10, 12
라인스페이스 : 1 1-112, 2
KEY의 수 : 44/96
COPY : 1+3
전원 : 100V/60Hz
중량 : 4.0kg(8.81bs)
제품가격 : ₩297,000
Mr 헬전
구입안내
◎6개월~36개월 할부로 구입하십시오.
은행신용카드—타자기는 지금 당장 쓰시고, 대금은 다음달부터 월9,000원씩 은행에 입금해 주십시오.
◎은행신용카드가 없는 분은 부모, 형제, 친구에게 딱! 한번만 빌려서 할부로 구입하십시오.
사무기기전문백화점
라이카(주)
◎종구전시관 시청영다동입구
TEL 756-2244代, 752-3211
FAX No 756-3212
부산은행 시청 공동B/D 401호 서울신문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외국어교육의선구자
PAGODA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B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인영어회화·S.L.E. (각반 12명/강사전원 학사 석사출신 미국인/10달완성)·미국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 Active회화
ENGLISH영작, 문법·TIME·영어숙해·TOEFL·종합영어 영어독해·성문기본영어·영어실력기초·KOREA TIMES VOCABULARY·AFKN청취· TOEFL L/C ·무역영어
S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훈련하는 日本語·표준일본어·NHK일어청취·일어통역가이드· 프랑스어·프랑스인회화·독어·독일인회화·중국어· 중국인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신이학교수법 외국식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철권발급 ·수료증 취득 PLACEMENT TEST를거친LEVEL배정
274-4000, 274-6821, 6822
다음학기 예약접수중
종로 2가파고다공원건너편흰빌딩
I CAN DO 파고다 외국어학원

金小葉詩集
발간 석 달만에 7판 발행
님을 그리는 승화된 사랑의 詩美學, 영혼으로 만나는 순정한 사랑의 갈구

영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육의 남편이신 장로 고 양영재교수님께 첫 열매를 바칩니다 맑은 감성과 유려한 가락, 깊고 그윽한 동양적 서정을 바탕으로 사별한 한 사람을 향해 띄우는 김 소엽 시인의 사랑 헌시。
유한한 사랑에서 영원성을 지향하며, 초월자에 대한 영적 그리움과 사랑으로 승화시킨 김 소엽의 시편들은 한편 한편이 밀도 짙은 시적 긴장감과 가슴을 찌르는 절실성을 동반한다。
그대는 별로 뜨고
2,000원 文學世界社(764)2672.

혜진詩選集 29
인당수에 부는 바람
河吉男 詩集
서정의 농숙과 참신성을 지닌 有精卵의 詩篇들!
하길남에 있어서 詩란 바로 인연의 줄을 찾아가는 영혼의 자기구제의 방법일 것이다. 인당수 물의 효험이란 바로 그 죽음과 환생 그리고 눈멈과 눈뜸이란 영혼의 변증법이 아닐 것인가. —
값 2,500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45-3호 ☎712-7398
혜진서관

全國大學新聞 광고문의 741-1166 6612
애드진

이데올로기 도서 유입의 문제점

이념도서 농동적 취급방안 모색돼

자유체제 우월성 증명하는 연구시각 넓혀야

이 종 국 〈한국출판학회 삼국장〉

기획 논단

禁書와 이데올로기성 圖書의 性格

금서란, 일단 출판된 저작물이 판매 또는 유포가 금지된 책을 의미한다。이러한 책은 당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발행·발매 금지의 처분을 받은 도서를 그 범위로 하고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은 자국의 이익이나 통치권력에 도전한다고 판단되는 도서에 대하여 금서조치를 취해왔는데 그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즉 체제문제, 이데올로기, 인종·지역차별, 공안질서 문란, 종교문제, 풍속문란, 음란, 외설,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체제문제와 이데올로기문제를 취급한 것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다시말해서, 統治權力을 확장 내지는 영속화하려는 기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내용을 다룬 도서와, 사회주의권의 문제를 이적적표현으로 다룬것, 또 서방적발법에 반하여 유물사관을 기초로 한 공산·사회주의 이론을 고무, 찬양한 내용의 도서를 금서로 규정했던 것이다。

우선, 체제설금서는 권력구조와 그에 의해 조직된 각 분야의 기성체제, 기성제도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거나, 고발, 개혁하려는 서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비판·고발,개혁하려는 意志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그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어떤 수준이어야 한는것이 평가요건으로서 전제된다。다시말해서, 도서는 短文의 宣動的인 슬로건이나 即時的認識의 文句가 좀더 노골적으로 반체제적인 표현을 썼다하여, 그 책전체를 금서또는 이데올로기성 도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이 점에서 볼때, 부분 또는 단위도서전체로 그에 대한 여부판정을 어떻게 행선할 것인가하는 일은 적법에 따라 구분해야 할 일이지만, 이는 언제나 기초적인 문제이면서 또한 종합적인 관건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명저중 페인의 「상식」、랄케트의 「폭군토벌론」,맬러스의 「인구론」、손문의 「삼민주의」 등이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던 대표적인 도서였다。이로볼때 책은 후대의 역사적평가에 의해 그 진가가 매겨진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 이데올로기성 금서는 새롭운 이념과 사상을 중심으로하여 기성체제, 기성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도서들이다。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성 도서는 사회주의·공산계열에 관한 내용을 취급한것이 그 주종을 이루고있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고나서 잠시동안이긴 했지만 1982년 2월 22일을 기해 사회주의적 이념도서나 그 연구·비판도서에 대한 출판완화조치를 취한 일이 있었다。

이로하여, 칼 마르크스의 생애」등에 대한 연구·비판서적이 출판되었고,이후 이념도서에 대한 출판이 계속되는 듯했다。

그러나 1985년 2·12총선후 정국불안이 심각해지자, 이해 5월초에 이념도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수거가 집행되었다。「學問硏究만이 아닌 일부 운동세력권의 의식화기저로 편식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단속이유였다。그리하여 올해 주변의 3개 서점에서 「민중연구론」「마르크스와 푸로이트등 인문·사회과학 계열 서적과 기타 자료집, 유인물등 1천여권을 압수해 갔다。

결찰은 「이들 서점들은 반국가단체및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중앙·소련의 공산주의및 마르크스주의를 찬양하며, 노동투쟁및 폭력투쟁을 고무하는 내용의 서적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그 압수수색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역사적으로 볼때, 마르크스의 「자본론」,꽁트의 「실증철학강의」,「포이에르바하의 「사와 불사의 사상」,「볼테르의 「철학사전」 등이 이데올로기성 금서로, 각각 자국정부로부터 압수, 판금당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칼한 일이 아닐수 없다。

禁書는, 예컨대 父母가 成人漫畫를 읽고있는 자녀에게 「읽지말라」고 하는 식의 교훈적 의미와는 다르다。이경우는 윤리적측면이 강조된 일장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권력이 규제하는 것은 統治運用的방편이며, 憲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외면해 버리는 일이 된다。특히, 사회과학 도서권의 流入에 대하여 「일탈금기」로 터부시하는것은 세계를 상대로하는 우리의 상승적위상에 비추어 큰문제점을 지은 6백70여종 (문공부에 의해 규제된 「문제성도서」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실제로 묶여있는 도서는 줄잡아 1천여종이라고 추산한 바있다。이 도서들은, 앞서 말한 바와같이 체제비판적인 政治性書籍과 社會主義的 이데올로기성 서적으로 대별된다。

1987년 8월부터 13명의 인문·사회과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서심의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른바 「문제성도서」들에 대한 분류작업을 벌여온 문공부는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눈 바 있다。즉, ①판금종용 해제도서 ②사법심사 의뢰대상도서 ③월북—공산권작가 문학도서 ④판례인정 이적표현물의 네가지 형태가 그것이다。

이와같은 형태의 도서는, 우선 1987년 10월 19일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등 정치학분야 102종,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등 경제학분야 59종, 「커뮤니케이션사회학」등 사회과학분야 103종, 「실존과 혁명」등 종교·철학분야 32종,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등 역사·교육학분야 17종, 「타는 목마름으로」등 문학·예술분야등 118종 등 총 431종이 해금대상도서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들 해금도서는 14종을 제외하고는 80년대에 들어 출판된 것들이며, 특히 사회과학도서는 번역본이 대부분이었고, 문학·예술도서는 한국인이 저작한 시집·창작집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해금이거나 유보된 도서는 사법심사 의뢰도서가 1백81종으로 가장 많았다。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그 내용이 공산주의 활동을 고무·찬양하거나 폭력혁명을 선도하는 위험도서」였다는 것이다。다시말해서,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불온도서」로 그 포괄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범위는 대체로 현재까지 계속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김기팔 정지용 등 일부 금기작가들에 대한 연구서가 개방되고 있으이, 다른 이념도서들도 그 이론적 해부를 제시하여 문제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그것은 이쪽의 이념을 상대적으로 키우는 방편으로서 선택되어야 하며, 보다 안정적 성장추구를 실현하는 문화적 안목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이데올로기성 도서 유입에 따른 대응 해외출판물은 한국외서수입협회 회원사에 의해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국내에 배포되는 모든 내외국도서가 마찬가지이지만, 일단 문공부에 납본하여 그 판정결과에 수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좀더 이념성이 강한 도서류—사회과학도서들은 그 「이념성의 짙고 엷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달북—엽자(출판인, 수입인, 판매인)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일단 「판금」으로 결정될 경우에 사법적·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지, 또는 단순히 경제적 손해만으로 그치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양하기 위해, 예컨대 별도로 취급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연구목적 등에 활용할 도서를 수입, 구독을 주선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사례는 특히 동구권에서 발행된 출판물들을 들여올 때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東歐圈에서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西歐에서 번역된 이념도서의 경우는 그와같은 채널은 마찬가지이다。

기실, 이념도서는 善用보다는 악용의 소지가 더많은게 사실이다。물론, 善用의 목적이란 相對的理念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出版流通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른바 이념도서는 그 유일경로나 근거가 불확실한것이 많아 지하화되어 있고, 또 저작물의 성격형태도 조잡한 복사판이 적지않은 실정이다。바로 이러한 실태가 역기능을 더욱 부채질한 셈이 되었다。다시 말해서, 탄압을 피해 유통되는 지하모체성 성격이 상징적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른바 사회주의권도서가 주종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념도서는, 「규제」에만 연연할것이 아니라, 우선 연구목적등에는 더욱 활성적으로 취급될수있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것이다。이미 禁書라 해도 읽을 사람은 모두 읽는것이 현실(1987·9·10 동아일보6면)이고 보면, 규제의 의미를 발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그저 「규제」만으로 묶어둔다면 도리어 「地下文化」가 확산될것이기 때문이다。이는 매우 경계해야될 것이다。이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데올로기성 圖書의 販禁問題

우리사회의 理念圖書에 대한 解禁如否가 좀더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중반부터였다。

그것은 사회 각 부문에 걸쳐 민주화바람이 일고있는 가운데, 출판계에도 「출판의 자유」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던것이다。1987년6월초순에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가 펴낸 「출판탄압백서」에 의하면, 80년 이후의 판금서적 양하기 위해 모든면에 있어서 민주화를 추진하기위해 노력하는 마당에, 자유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할 반이념도서를 착실히 연구·개발하여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넓혀가야 될 것이다。

이념도서 농동적 취급방안 모색돼

외국저작물의 파행적 운영이 역기능 초래

서류—사회과학도서들은 그 「이념성의 짙고 엷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달북—엽자(출판인, 수입인, 판매인)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일단 「판금」으로 결정될 경우에 사법적·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지, 또는 단순히 경제적 손해만으로 그치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양하기 위해, 예컨대 별도로 취급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연구목적 등에 활용할 도서를 수입, 구독을 주선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사례는 특히 동구권에서 발행된 출판물들을 들여올 때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東歐圈에서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西歐에서 번역된 이념도서의 경우는 그와같은 채널은 마찬가지이다。

기실, 이념도서는 善用보다는 악용의 소지가 더많은게 사실이다。물론, 善用의 목적이란 相對的理念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出版流通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른바 이념도서는 그 유일경로나 근거가 불확실한것이 많아 지하화되어 있고, 또 저작물의 성격형태도 조잡한 복사판이 적지않은 실정이다。바로 이러한 실태가 역기능을 더욱 부채질한 셈이 되었다。다시 말해서, 탄압을 피해 유통되는 지하모체성 성격이 상징적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른바 사회주의권도서가 주종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념도서는, 「규제」에만 연연할것이 아니라, 우선 연구목적등에는 더욱 활성적으로 취급될수있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것이다。이미 禁書라 해도 읽을 사람은 모두 읽는것이 현실(1987·9·10 동아일보6면)이고 보면, 규제의 의미를 발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그저 「규제」만으로 묶어둔다면 도리어 「地下文化」가 확산될것이기 때문이다。이는 매우 경계해야될 것이다。이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錢(?)국구 공천

돈과 권력은 바늘과 실이다。돈이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정부요직에도 오를 수 있고 권력가진 자는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훑어 넣우 있으니 말이다。돈가는 곳에 권력있고, 권력있는 곳에 돈붙는 세상이 요즘 세상인가 보다。

최근의 전국구 공천、전경환 비리등은 돈과 권력、재벌과권력의 야합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전국구는 현행선거법에 의하면 전구 의석을 5석이상 차지한 정당의 의석획득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제 1당이 과반수 미만의 지역구 의석을 획득했을 때는 제 1당에 의석 2분의 1을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을 제 2당 이하 정당에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갖도록 되어있다。즉 전국구는 철저하게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의회 장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전국구가 현 대판 매관매직이라는 사실이다。돈을 받고 전국구 후보를 선정하기는 여야가 모두 마찬가지이다。지난 4월 초를 전후해서 발표된 각 당의 전국구 후보 선정에 대한 여론의 화살이 따갑다。그리고 그 비난의 내용은 돈있으면 금빼지를 다는 기가 막히다 못해 코막힌 현실에 대한 비웃음이다。

야당의 경우 별다른 정치자금을 확보할 길이 없어 전국구 헌납금이 거의 유일한 정치자금의 마련통로라고 변명할수 있을수도 있지만 이건 뭐가잘못되도 단단히 잘못된것이다。

들은 풍월에 의하면 전국구는 직능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생긴 제도란는데 우리는 전국구 5번안에 공인한 사람은 20억원짜리로 6번에서 10번사이는 15억원짜리로 보이니 이를 어쩌랴。상황이 이러하니 돈있어 금빼지 달겠다고 저희들끼리 치고 박고 하는판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그런데도 신문은 마치 전국구 인선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양 실종 분석기사까지 써대고 있으나 돈잔치에서 소외된 우리같은 진짜 보통사람들에게야 돈과 권력은 먼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평생가야 만져보지도 못할돈이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믿음가 어떻고 국민의 뜻이 어떻고 하는데야 기가 막힌다。

時論

임 성 택 〈서민련 회원〉

재벌과 권력의 뒷거래

올봄 세간에는 전두환, 전경환과 그 일가 친척을 둘러싼 각종의 비리가 폭로되면서 화제가 만발하다。

국제그룹의 양정모회장은 그의 고소장에서 「국제그룹은 청와대、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일해재단등 제5공화국 권력 상층부의 정치적 동기 때문에 희생됐다」고 말했다。새마을성금을 적게내고 청와대 만찬에 지각하는 등으로 미운털이 박혀 쫓겨났다는 것이다。

D제강인가는 새마을 성금과 심장재단 기부금조로 모두 30억원을 헌납하여 자기회사보다 규모가 큰 연합철강을 인수하는 엽체로 크고,3억원을 낸 국제그룹은 해체의 결과를 맞았다는 것이다。아직 확실히 진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권력을 배경으로 한 모 고위경제 각료로 부터 헌금에 대한 강력한 충고를 받았다는 말은 새마을 본부가 권력의 핵심과 직통으로 연결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권력 집단에 보인 재벌을 해체까지 시키는 그 전지전능(?)함에 다시 한번 놀라게된다。이런 운나쁜 재벌이야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경우이고 재벌과 권력의 뒷거래는 알고있다。

재벌들은 각종 금융특혜 등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노사분규가 나면 전경투입해서 해결해 주는 든든한 빽을 갖게되고 권력집단이야 별로 어렵지않은 일 해주고 정치자금 챙겨서 좋고 그렇게 하여 상부상조로 형님、아우해온지 벌써 몇 십년인가?

마르코스 성역 연상케하는 일해재단

일해재단、일해 연구소의 기금조성 과정은 그동안 장막에 가려져있던 면모가 좀 드러나면서 정·경유착을 실감나게 한다。

일해재단은 83년 10월 「아웅산 폭발사건」이 계기가 되어 설립됐다。

버어마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전두환과 수행하던 독점재벌들 사이에 유독에 대한 보상과 날뛰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그 기금 조성을 위하여 50대 재벌그룹이 선정되어 현대·럭키금성·삼성·대우 등 4대 재벌이 그룹당 40~50억씩, 나머지 기업이 5억~10억씩을 내놓아 5백59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는데 기부금 액수는 미리 정해놓고 반강제로 염출된 것이라 한다。50억은 분명 어느 집 애이름이 아니다。백만원 짜리로 오백장이라고 말하면 실감이 날까。도시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 느낌이 들지 않는 액수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자금 규모의 엄청남에도 있지만 결국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는 것을 생각하면 욕이 절로 나온다。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일금인상 요구투쟁을 곤봉과 각목으로 최류탄으로 짓밟는 그들이 수십、수백억을 서로의 주머니로 넣었다 빼다 하는 것이다。그 엄청난 액수의 돈이 결국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배부른 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총부지 20만 6천여평 규모인 일해연구소내에 있는 소위 「도깨비 기관」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독재자가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도 알고보면 「지은 죄」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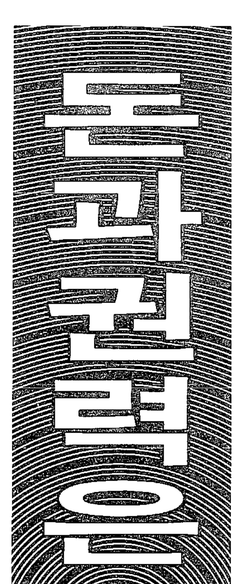
5공화국(?)소환 돼야

그러나 최근 전경환 비리수사과정은 많은 불철저함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롱당한 기분이 들기까지한다。전경환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별히 마련한 제25의 영빈관에 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다 이라는데 화학샹들리에、등나무 옷장、의제 변기、실내 수영장、비단잉어가 노니는 인공연못 등 그 화려함이 대단하다고 한다。필리핀의 마르코스가 필리핀 민중들에 의해 쫓겨난 후 공개됐던 마르코스、이멜다의 초호화판 생활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예외없이 독재자는 모든 부정부패·축재의 선두주자이라서 권력이 바뀌거나 하면 그 비리가 속속 드러나게 마련이다。독재자가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도 알고보면 「지은 죄」 때문일 것이다。

도깨비 기관이 마녀사냥 실이다

비밀가옥은 전두환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25의 영빈관 화화샹들리에、등나무 옷장、의제 변기、실내 수영장、비단잉어가 노니는 인공연못 등 그 화려함이 대단하다고 한다。필리핀의 마르코스가 필리핀 민중들에 의해 쫓겨난 후 공개됐던 마르코스、이멜다의 초호화판 생활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예외없이 독재자는 모든 부정부패·축재의 선두주자이라서 권력이 바뀌거나 하면 그 비리가 속속 드러나게 마련이다。독재자가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도 알고보면 「지은 죄」 때문일 것이다。

정집행장의 잘못으로 혁사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다 전씨의 비밀출국이후에야 수사착수 의사를 밝혔었다。또한 수사착수 9일만에야 전씨를 소환하여 수사관례에 어긋나게 중요사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과 은폐조작의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으며 즉각적인 가택수색으로 비밀계좌、통장、잡부 등을 일수했어야 했는데도 기소직전에야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이는 범죄사실의 밝혀지는 날、그것은 민주주의 시대의 새날이 될 것이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
유한킴벌리

너무 다른 기분!

재미없는 강의 들을때와
재미없는 강의 끝났을때와,

시험 보기전과
시험 마쳤을 때와,

샤워하기 전과
샤워한 뒤와,

팬티라이너 안한 날과
팬티라이너 한 날과,

너무 다른 기분!

◎후리덤 팬티라이너의 용도—
여성들은 생리가 아닐때라도
늘 약간의 분비물이 있지요
후리덤 팬티라이너는 이 분비물을 깨끗이
흡수해 주는 팬티청결대입니다.
팬티안쪽에 살짝 붙여두고, 하루에 서너번만 갈아주면
항상 상쾌하고 깨끗하게 지내실 수 있답니다.

코텍스* 후리덤* 팬티라이너

*표는 미국 킴벌리 크라크의 세계적인 등록상표입니다 *REGD TRADEMARK KIMBERLY-CLARK CORP, U S A

PRINTED IN KOREA, 1987 OCT

"社會主義와 民主的 개혁"

미하일 고르바쵸프著 「페레스트 로이카」를 읽고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쵸프가 1987년 여름 들고 나온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ca) 는흔히 「재건」, 「재조직」, 「개혁」이라고 불린다。그는 이 책을 통해 소련의 경제침체와 성장저하및 계속되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자성에서 새로운 사상으로 전 세계와의 합의를, 모색하고 인간으로서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술회하고 있다。대체 고르바쵸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시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혁신적 재구성」은 어떤 것인가。

그가 말하는 이 「개혁」은 단순한 경제구조의 개편만이 아닌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등 철학적 차원의 변화까지 수용한다。이제까지의 소련정치가 사회주의를 왜곡하였으므로 원래의 사회주의에 복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일련의 문제들인 「생산효율의 체감」「생산품의 질적저하」「기술부진」 등의 해결책으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제시한다。즉,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주요 요소인「효율성」, 「시장및 상품」, 「가격과 이윤」, 「사적 소유」가 「페레스트로이카」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경영합리화를 통해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제도입으로 품질개선을 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고르바쵸프가 말하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결합이다。경제개혁과 더불어 생활의 개방화, 인도주의, 개인에 대한 존엄성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서방측에서는 『소련이 사회주의적 사회와는 다른 비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체제로 변화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에대해 고르바쵸프는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를 강화하기위해 민주주의 원리를 도용하는것 뿐이지 결코 사회주의의 포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하고있으며 『역사상 어느혁명도 성공후에 무기를놓고 성공의 화환속에서 쉬어본 적이 없다』는 레닌의 말을 인용하여 페레스트로이카는 혁명이며 이를 통해 발전적으로 몇단계의 혁명을 거쳐야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아울러 페레스트로이카는 실시이후 예상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개혁인 그라스트노스트에 더 많은 빛을 주라고 외친다。

> 고르바쵸프는 그의 저서를 통해 일련의 경제개혁과 아울러 개방화, 인도주의등의 민주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술회하고 있다。

또한 고르바쵸프는 핵전쟁이 어떤 정치경제, 이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무기경쟁은 그 자체가 평화의 적이며 세계안보의 유일한 길은 정치적 결정과 무기제한 뿐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지난 INF협정에서 소량이지만 핵무기철폐에 동의한 것은 이러한 그의 사상과연관지어볼때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제3세계문제에 대해서도 서방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특히 니카라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군사적 간섭으로 니카라과 혁명을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프카니스탄문제에 관해서도 아프간 내부의 진보적 변혁정책추진과정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소련과 아프카니스탄조약에 의해 소군병력을 투입했다는것이다。소군이 빨리 철수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의 간섭은 소련군의 철수를 어렵게 할 뿐이며 미국의 제3세계에대한 성급하고 무분별한 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저서는 고르바쵸프 개인의 선전적의미는 넘어선다는 지적이 타당하다。소련내부의 제반문제 인식도 비교적 솔직하고 상세하며 그가 말하는 개인의 이익과 평등 개념도 그의 정책실천과정에서 지켜볼만하다。아울러 서방세계에 팽배해있는 소련사회주의의 종말론적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의 정책이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또한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여러 의혹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고르바쵸프의 대서방 호소에 대해 닉슨은 그의 저서 「1999년의 전쟁없는 승리」에서 서방은 고르바쵸프에게 속고 있다고 말하고 그의 세련된 매너에 매혹당해 정신무장을 해체당하고있으며 서방세계가 평화유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패배이며 단순한 평화유지가 아닌 승리만이 자유세계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하기도한다。

아룽든 新베오그라드선으로 30년간 고수해온 브레즈네프의 제한주권론을 포기하면서 사회주의발전의 다양성을 인정한 것이나—바르샤바군과 나토군의 동시해체, 유럽의 비핵화, 유럽으로부터의 미군전면철수라는 소련전략의 복선이라는 지적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앞에서 살펴본 INF협정조인이나 아프간에서의 소군철수등 일련의 대담한 대서방 평화공세와 포석에 서방세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문 선 근
<공과대 토목공학과>

資本論研究 화제의책 보통고릴라

資本論研究 I

金秀行 著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동안 거론조차 금기시되어왔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관한 연구서가 前 한신대교수였던 金秀行교수에 의해 출간되었다。

「자본」「토지재산」「임금노동」등 총3권으로 이루어진 자본론은 그것이 학문적·정치적으로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남북분단 이데올로기속에서 그 연구조차 변변히 이루어지지 못했던실정에 비춰볼때 이번 金교수의 「자본론연구」는 그가 序文에서 밝히고 있듯, 「자본론에 관한 일반적인 공포심과 적대감을 경감시키고 하나의 위대한, 이념을 초월한 고전으로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줄 것」임은 분명하며 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에 기폭제역할을 담당하리라 본다。

모두 3권으로 계획된 것중 1권에서는 자본론의 방법론과 주제별연구및 슘페터, 케인즈와 마르크스를 비교하여 경제학사속에서 마르크스이론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책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경제학계와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 대해 언급, 한국의 경제학계가 다양한 학문조류를 수용하여 우리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사회구성체이론(제2권), 후진국 및 한국경제분석(제3권) 등의 내용으로 발간될 「자본론연구」는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서구의 번역서들과는 다르게 주체적으로 연구, 기존의 교조주의적 시각을 극복하고 「자본론」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에있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길사刊>

보통고릴라

주완주 作

말과 그림이 결집되어 이 척박한 땅을 웃음을 통해 꿰뚫어 보련는 이야기그림책 「보통고릴라」가 주완주씨에 의해발간되었다。

우리사회에서 파괴적 역할을 담당하는 모순된 구조나 행위의 여러가지 모순과 단면들을 포괄하여 응축시킨 고릴라를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전·노」로 대표되는 군부독재와 미제및자본주의사회의 모순들을 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데 작가는 서문을 통해 『웃을 수 없는 이땅에서, 헐값의 퇴폐적 웃음들만이 우리 가슴 속에 정착하지 못하고 곧중을 떠다니는 이 사회에서, 이나라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웃음의 모습이란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데 일년동안 골똘한 내 나름대로의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그 의도를 밝히고 있다。

작가인 주완주는 현재 미술운동과 출판운동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로서의 만화작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 책도 그러한 작업에 궤를 같이하는 작품으로써 「마음을 비웠다고?」, 「6·29는 화끈합니다」, 「조각?…개각!」, 「민주 내 사랑」, 「구로구천」, 「성조기가 바랄에」, 「인산홀공화국」 등 편편의 만화를 통해 우리의 삶 기저에 깔려있는 억압과 모순의 현실들을 통찰하고 그 오염된 현실들을 언어와 그림의 함치를 통해 씻어내고자 하는 작가의 몸부림과 民主化에 대한 소망이 결정처럼 빛나고 있다。

<세계刊>

文化部

스포츠맨 쉽

인생은 스포츠처럼 살아야한다。스포츠에는 하나의 철학이 있고 예술이 있고 윤리가 있다。이것을 우리는 「스포츠맨쉽」이라고 한다。스포츠맨쉽에는 기사도의 정신이 있고 신사도의 모럴이 곁들여진다。

大学話話

운동선수가 마땅히 갖추어야할 인격과 품위와 정신과 태도를 「스포츠맨쉽」이라고 일컫는다。

「스포츠맨쉽」은 3대요소로 구성된다。첫째는 公正의 정신이요, 둘째는 友愛의 정신이요, 세째는 敢鬪의 정신이다。

공정과 우애와 감투, 이 세가지 원리가 스포츠의 魂이요 정신이요, 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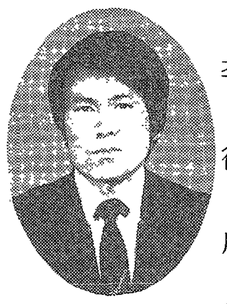
공은 스포츠의 혼이다。운동선수는 먼저 「페어 플레이」의 정신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야한다。부정한 방법으로 이기려는 것은 운동정신의 수치요 타락이다。선수도 심판도 공정해야 한다。스포츠에는 억지, 부정, 편파, 私感이 없고 또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정신을 높이 찬양한다。정치와 기업도 마땅히 스포츠정신으로 해야한다。

우애있는 스포츠는 友情속의 경쟁이요, 가장 인간적인 싸움이다。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규칙을 지키면서 떳떳하게 승부를 가린다。상대방의 우수한 기량과 실력과 경기에 우리는 진심으로 박수 갈채를 보낸다。본의아닌 실수를 하였을때에는 미안하다는 사과를 잊지않는다。

피투성이가 되어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시합이 끝나면 서로 어깨를 두드려주고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눈다。이것이 스포츠의 위대한 장점이다。

감투는 스포츠의 제3혼이다。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약동을 결합시키는 것이 스포츠다。스포츠에서 인간의 정신력과 육체력은 최고도로 앙양되고 정상의 영광과 기록의 갱신을 위하여 전심전력, 최후의 순간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전력투구의 행동에는 인간 최고의 기도와 감동과 정열이 있다。



<이문대교수·체육심리학>
李德成

인간이 자기의 기력과 체력을 다하여 선전역투하는 광경처럼 진지하고 엄숙하고 비장한것은 없다。

인생을 스포츠처럼 살자。

東岳路

"고학력 유죄도 지않게 최선의 취업대책을"

『취직이 안돼 가족들 얼굴대하기 조차 부끄럽다』는 유서만을 남긴채 스스로 생명을 끊은 취업후보생。

고학력자 취업이 과포화상태에 이른 것은 졸업시즌이 되면 낯설지 않게 대하는 이런 종류의 기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학입시라는 치열한 경쟁의 문턱을 넘어서고도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 것이 취업이라는 「좁은문」임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다。

이같이 졸업후 진로를 결정하는 취업율은 작년 졸업생의 경우 71.26%였다。이는 예년에 비해 4%정도 떨어진 것이다。이에 대해 학생처 취업관계자는 지난해 7, 8월 노사분규에서 취업이 줄어든 원인을 찾는다。그러나 한편으로는 3저현상등을 들먹이며 오히려 취업증가요인을 설명하니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수 없다。

특히 本校의 경우 취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매년 유동적인 몇% 가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단대별로 취업이 고르지 못하다는데 있다。그예로 전체취업률이 가장 높은 법과대는 91.78%의 호조를 보이는데 반해 이과대는 그 절반수준인 45.45%이며 그중 여학생 취업률은 22%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또 사범대의 경우 전공을 살려 졸업후 교편을 잡은 졸업생은 14.44%이며 그나마도 여학생은 교직에 임용된 것이 전체취업자중 6.9%에 그친다。

비록 사회에서 科선호도의 차이나 교원임용에 있어 순위고사와 같은 장애요소가 있다고는 하나 전공을 기초로 한 취업과 취업률이 저조한 科의 취업지도를 중점으로 해 과별취업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학문에 대한 사기나 과에 대한 자부심조차 사라질 것이 자명하다。

취업률 19.4%의 과와 32명의 예비교원중 1명만이 그꿈을 달성할 수 있는 과에서 사기와 자부심이 생길리는 만무한 것이다。

「고학력」이 유죄인 사회에서는 올바른 취업대책만이 무죄임을 변호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정우석記者>

잘 읽히는 사회과학 도서를 찾아서

대학인의 올바른 세계관 정립에 조력자 역할

끊임없는 비판과 문제제기로 도서내용 소화해야

『어떤 책을 읽을까?』

이것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갖게 되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이에 本記者는 사회과학도서의 내용과 판매현황에 관해 출판사와 대학교 주변의 서점에 들러 각각 살펴 보았다。

우선 철학 관계 서적으로는 「노동자의 철학 1·2」(민해철 지음, 거름) 「동양사상과 마르크시즘」(양재혁 지음, 일월서각) 「실천의 철학」(신재용 엮음, 백산서당) 등의 판매량이 많다고한다。

「노동자의 철학 1·2」의 경우 1권은 「변증법적 유물론 이야기」 2권은 「사적 유물론 이야기」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자 계급의 생활 속에서 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 「철학의 체질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경제 분야의 서적으로서는 「경제사 학습」(양상철엮음, 세계), 「한국전쟁과 한미관계」(브루스 커밍上 외 지음, 박의경 옮김, 청사), 「민주주의 혁명론」(여현덕·김창진 엮어옮김, 한울), 「한국 경제의 관점」(이내영 엮음, 백산서당) 등이 주목할만하다。

「경제사 학습」의 구성은 노동의 관점과 대중의 입장 위에서 인류의 역사를 각사회 구성체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문답형식을 통해 학습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혁명론」에서는 「민주주의」 개념이 올바른 사회과학적 분석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계급적 입장에 근거하여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민주주의」란 어휘속에 숨겨져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레닌과 모택동의 민주주의 혁명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특수한 입장에서 비롯되어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민족민주혁명론, 반독점민주주의혁명론 등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내용을 서술하고있다。

「한국경제의 관점」이 제시하는 바는 현상적 관점을 지양하고 사회성격 및 정치와의 관점, 한국경제와 제국주의와의 본질적 모순 해명 한국사회구성체 논의의 실제적 적용이라는 점들이다。

다음으로 사회운동 관계서적은 신입생들에 특히 많이 읽히는데 「껍데기를 벗고서」(동녘),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민가협 거름) 「민중의 함성」(조민우 거름) 「삼청교육대 악몽의 363일」(장충제, 청사) 등은 폭로물로서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민중의 함성」 1부에서는 철거민의 실상, 성고문 사건, 보도지침, 복지원 사건을 파헤쳐 진실을 밝히고 있으며 2부는 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는 시각, 미국의 저질문화들, 핵병참기지화 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3부는 일반 민중이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역사, 교육, 여성 관계로는 「한국 민중사 I·II」(한국민중사연구회편, 풀빛), 「한국현대사와 역사인식」(진덕규·강만길 외, 한길사), 「해방전후사의 인식 I」(한길사), 「러시아 막스주의」(널하딩 엮음, 이성혁 옮김, 거름), 「내가 두고 떠나온 아이들에게」(공동체), 「한국 여성노동의 일 평전」은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것으로 공원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한다。여순반란 사건을 다룬 「태백산맥」은 1, 2, 3권이 크게 호응을 받아 각 서점에서는 이후의 출간에 대한 문의 쇄도를 받았는데 막상 4, 5권은 기대이상 판매되지 않았다는 게 서점가의 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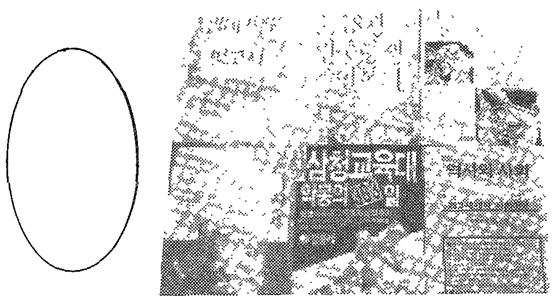
「무기의 그늘」과 「역정」은 황석영, 이영희氏의 저명도 이외에도 출판 당시의 어려움이 알려져 일반인들도 많이 읽는다고 한다。

必讀書로 일컬어지는 「노동의 새벽」(박노해) 외에 「한라산」의 시인인 이산하氏의 「불신검문시대」 「나의칼 나의피」(김남주) 등도 선호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나있다。

이상과 같이 대중교육용 또는 선별된 대중을 위한 서적들은 대학인의 올바른 세계관 정립에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 비판과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용해되어질수 있다。끝끝내 어둠이기를 거부하며 올바른 변혁의식으로 각자 주체가 되어 너와 내가 함께 나아가야할 것이다。

<김 일記者>



동악広場

문화단신

「태」공연

극단 목화에서는 내달 6일부터 15일까지 동숭동 문예회관 소극장에서<미쓰이페스티발 동경88>초청 기념공연으로 「태」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1974년 드라마센터에서 초연한 이래 시대변화에 따라 상황연극으로 새롭게 해석되어 공연된 극작가 오태석씨의 전통연희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표현양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쎄뇨라」

스페인 영화의 첫 수입작품인 죠르디 카데나감독의「쎄뇨라」가 지난23일부터 아세아·다모아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이 작품은 스페인의 전원풍경을 배경으로 미국성향의 포르노적 묘사에 식상한 관객들에게 애정이 없는 결혼생활과 이상성격의 남편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여성의심리를 리얼하게 묘사하고있다。

「상방」공연

경주시립극단은 춘계공연으로 김지현작/이금수·연출연극 「상방」을 오는4월30일~5월1일까지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오후4시30분, 7시30분 두차례 공연을 갖음

게시판

공과대 원고모집

공과대 학생회 편집부에서는 공과대 신문을 발간하기 위해 시, 논문, 수필 원고를 모집하고있다。원고접수는 오는30일까지 공과대 학생회편집위에서 받는다。

농과대 판화모집

농과대 학생회 문화국에서는 내달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할 판화전시대회에 전시할판화를 모집한다。

크기 소재에 제한은 없으며 내달10일까지 농과대 학생회로 제출하면 된다。

논문포스터 현상공모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는 국민생활향상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문 수기 표어 포스터를 내달31일까지 현상공모한다。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자세한 문의는 796—8053으로 하면 된다。

영어학교 수강생 모집

광학문 영어학교에서는 99기 수강생을 모집하고있다。수강기간은 5월4일부터 주5일, 8주간이며 신청은 내달3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자세한 문의는 737—4631

경영대학원 체육대회

경영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내달 1일 대운동에서 제10회 춘계기별대항체육대회를가진다。

編輯 수강생 모집

한국편집아카데미에서는 편집전문인력 육성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수강생을 모집한다。모집인원은 17명으로 내달9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강의를갖는다。수강료는 月8만원(접수문의처 : 783—6051)

방송강좌 신청

영어방송교육 System CBS아카데미 토플 방송강좌 및 Vocabulary 방송강좌 회원신청을 구내서점에서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4월15일~5월15일이며 회비는 3만원。

「복현 문화상」

경북대에서는 「복현 문화상」을 시(~5편), 단편소설(2백자 1백枚內外), 평론(70枚內外), 대학생활수기(50枚內外) 등 네 장르로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현상모집한다。

접수처는 대구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 학생처 학생과。

영어웅변대회

중앙대 중앙헤럴드편집국에서는 전국 대학생 영어웅변대회에 참가할 사람의 원고접수를 내달 7일까지 한다。주제는 자유이며 시간은 7분이내여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앙헤럴드편집국 (815—5051)

풍수지리학 강좌

대한풍수지리학회에서는 전통문화계승발전을 목적으로 매주토요일 12시 종로구 묘동에 있는 풍수지리학회사무실에서 풍수지리학 강좌를 개설한다。수강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745—3431로 하면 된다。

초파일 연등제작

부처님 오신날 기념 준비사업으로 불교학과, 불교학생회, 불교아동학과, 석림회, 심우회에서는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정각원 법당에서 연등제작을 실시한다。

서클활동

써·연 수련대회

3천써클인의 벗 제4대써·연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이틀동안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손으로」란 슬로건아래경기도 능곡 평화의집에서 써클대표자 수련대회를 갖는다(출발은 오는 30일 10시학생회관앞, 한명도 빠짐없이 제시간에 나오도록)

동·탐 춘계정기탐험

동굴탐험 연구회에서는 내달1~2일 양일간 강원도삼척군 하장면 정리로 춘계정기탐험을 떠난다。

ELF 춘계MT

E·L·F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이틀동안 일영에서 춘계M·T를 갖는다。(비용은 4,000원, 전회원의 많은 참여바람)

동국문학회 회원모집

동국문학회에서는 참신하고 용기있는신입회원을모집한다。

학과동정

국교과 백일장

국어교육과에서는 내달 1일 수유리 성도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신입생환영 백일장대회를 갖는다。(동문·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잔치마당이니만큼 신입생들은 모두 참석하기 바람)

생물학과 MT

자연과학대 생물학과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박3일간 설악산 낙산사로 M.T를 떠남。회비는8,000원。

지리교육과 MT

지리교육과는 오는 30일부터 이틀동안 일영에서 1학년학우들의 단합을 위하여 M.T를 갖는다。

동문알림

경동 동문회

경동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9일 5시에 불상앞에서 정기동문회및 야유회준비라는 안건아래 모임을 갖는다。(회비는 3천원+α, 동문들아 신경 좀 쓰자)

용문동문회

용문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9일(金) 5시에 불상앞에서 카니발 준비를 위해 모임을 갖는다。(회비는 3천원 34기신입생·대학원생도 필히 참석하기바람)

포항향우회

포항향우회에서는 오는27일 5시에 다향관 2층에서 MT를 위한 예비모임을 갖는다。(나올때는 MT비 4천원을 가지고 올것)

경기工동문회

경기기계공고는 오는28일 6시에 불상앞에서 「알고 지냅시다」라는 안건으로 모임을 갖는다。

부산동아동문회

부산동아고는 오는 28일오후5시에 불상앞에서 친목도모를 위해 모임을 갖는다。

올림板

관악의 순수魂에

벗은 하늘로 가고 어둠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있는가。

금화야! 항상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며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우리삶을 살아가자。그리고 건배, 또 건배

월피 석장에 오다

월남에서 피난온 성환아 너네 나라는 몰먹고 사니, 앞으로 콩나물국 꼭꼭 끓이고 내방 연탄불 훔쳐가는 종수놈좀 혼내줘라。

—813번지 병장(星)

곤충들에게

25시의 야간열차와 더불어 사라져간 세마리 곤충(?)들에게 부디 인간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하여 돌아오길 갈구하며。 —까뮈의 숭배자

여러분의 글들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각 분야에 걸쳐 여러분의 의견과 참신한 글들을 투고하여 주십시오。

▲詩
▲연극평·영화평·서평 (원고지 8매내외)
▲문예비평 (15매이내)
▲時論 (10매이내)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문화부>

학생복지는 소비조합운영으로

敎職員·학생 공동출자 관리 바람직

「직영화」문제점 보완할수 있어야

학생들의 요구에 입각한 운영돼야

최근 교내 복지시설의 운영방안에 관한 문제가 재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난 몇해동안 꾸준히 거론되어온 것이지만 작년 19대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복지시설의 효율적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본격 대두되었다.

현재 학교당국과 총학생회 양측에서 이의 연구검토가 진행중이나 실질적 개선방안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교의 경우, 자동판매기와 복사기를 제외한 학생식당등 20여개의 복지시설이 3년단위로 업주와의 임대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교내 식당및 서점을 들수있다.

다향관과 동북관식당등 대다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식당은 수요에 비해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음식의 질이 뒤떨어져 그동안 학생들이 수차례 이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의 질적향상과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복지시설의 직영화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의 직영화에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직영화가 실시될 경우 예상할수 있는것은첫째 이윤의 극소화에 따른 식당음식의 질저하상 둘째 여타복지시설에서 나오는이익금등으로의 재분배로 복지장학금등으로의 발전적 환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흑자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실제로 직영화를 실시하던 몇몇 대학들이 적자로 인해 다시 임대계약으로 돌아선 경우도 없지 않다. 셋째로는 복지시설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의 충원이 요구되는데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새롭운 직원을 충당할 경우 봉급이나 의료보험 퇴직금등을 여타 직원들과 똑같이게 지급해야 하고 만약 직영화실시가 제대로 되지않아 재차 임대계약제로 운영이 바뀔경우 이들에 대한 처리가 무척 어렵다』며우려를나타냈다.

현재까지 학교측에서는 직영화의 대체방안으로 동일업종 업주들간의 자유경쟁을 통한 환경개선과 서비스향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임대계약제가 결코 학생들의 복지나 質적인 배려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때 이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즉, 직영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이익을 최대한 수렴하고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조합」 형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타대학의 경우 교내 복지시설, 특히 식당을 소비조합에서 운영하고있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의 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조합」이란 교직원·학생이 조합의 구성원이 되어 공동출자를 하고 일정절차에 의해 선출된 임원들이 운영관리,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재배분하는 형태로서 그 운영이 이익자가 요구하는것을 저렴하고도 질적인 요구가 충족되는 발향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校의 교내복지시설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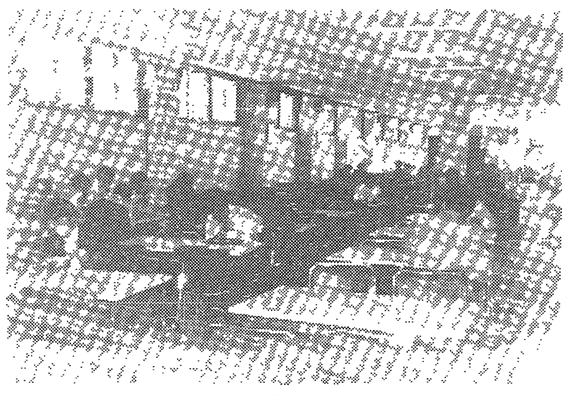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후생복지업무를 일원화시켜 전담할 부서가 마련되어 보다 신중하게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복지시설운영을 평백히 공개, 현재업자와의 계약체결로 인한 학생들의 의혹과 불신감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총학에서는 전임 복지담당자와의 인수인계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진정 학생들의 요구에 입각, 복지시설운영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할 것이다.

대학의 주체는 학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내복지시설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나아가 대학생활을 윤택하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함은 마땅하다.

〈지동철記者〉



◇학내복지시설은 학생들의 윤택한 대학생활을 이끌어내는 후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교수 불자협의회」 발족

본교 李총장(고문)등 60명참여

李智冠총장등 本校교수 60여명이 참가하는 韓國敎授佛子연합회 (회장=高潛煥경기대 법정대학장) 가 지난 2월27일 남산 대원정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에 빠진 佛敎를 중흥, 생활에서 실천되는 불교문화를 구현함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민족화를 쟁취하는 民主統一淨土를 이루는데 지성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그 창립취지로 하고있는 「敎佛聯」은 전국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 5백여명을 그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이모임에 본교에서는 李총장과 徐燉珏전총장이 고문을 맡고 있는 것을 비롯, 吳亨根(불교)曺勇吉(〃) 崔昌述(선학) 韓相範(법학) 延基榮(〃) 金炳奇(경후 무역) 교수가 이사를, 宋在雲(국민윤리) 吳國根 (영문) 교수가 각각 편집위원회·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吳亨根、延基榮교수가 학술부장과 섭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한 「敎佛聯」은 연간추요사업으로 「禪法會대중강좌」 「불교관계 학술심포지엄」 「불교논문집발간및 국제교류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자연인대동잔치

자연과학대주최

경후캠퍼스 자연과학대학생회 주최 「88민족자연인대동잔치」가 지난 8일 오전 9시 학생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화제작감상회」

독일영화 5편

「제3회 80년대 화제작감상회」가 대학원연영과·동국영화연구소·주한독일문화원등주최로 지난 15~17일까지 3일간 현랜독일영화를 중심으로 동국관(L101)에서 열렸다.

이 감상회는 그동안 상업성등의 문제로 일반에게 널리 공개되지 못했던 작품을 지난해부터 매학기 선보여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틀손을 위한 혈구곡」 「ZISCHKE」 「독일의 꿈」 「WALKMANBLUES」 「독일인의 시간」 등 5편이 상영되었다.

本校 야구부

첫경기서 낙승

春川공설운동장에서 열리고있는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 출전중인 본교야구부가 지난23일 영남대와의 첫경기에서 백성진(체육교육2)군이 3점 홈런을 터뜨리며 5대0의낙승을 거둬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慶州 컴퓨터교육

교수대상 18~22일

경후캠퍼스 전자계산소(소장=李桂英)는 「88학년도 컴퓨터교육」 1차교육을 교수들을 대상으로 지난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

總學예산 각기구에 배분

총4천3백여만원 운영委및 代總회의서 통과

서울캠퍼스총학생회를비롯한 각학생자치기구별 88학년도1학기 예산배분안이 운영위원회 대표 5인의 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총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확정, 승인되었다.

예산 배분은 전체예산총액 4천8백90만5천원중 축제준비비용 3백45만1천원(예산의 8%)과 총선관계로소요된 중선위 자금 2백만원, 예산소위 활동비 15만원을 공제하고, 실질행비예산액이 4천3백14만3천원으로 책정되었다.

각 기구별 예산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솔학에서 실집행예산의 17%인 7백33만4천원 ▲대총이 8·5%인 3백66만7천원 ▲여총이 4%인 1백72만5천원 ▲써연이 9%인 3백88만2천원 ▲각 단과대가 61·5%인 2천6백53만2천원을 각각 배분받았다.

이는 학회연합회의 폐지와 학생복지위원회및 인권옹호위원회가 바뀐 시행세칙에 의해 구성되지 않아 각 기구별 예산배분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 증액되었다.

受戒법회및 강연회

慶州 「민중불교와 통일」주제등

경후캠퍼스 총학생회 종교의 올바른 전파를 함에 있는데 이날 수계식 계사는 도문스님(서울 대성사주지) 이 맡게되며 강연회는 지선스님(광주 문빈정사 주지)을 연사로 「민중불교에서 본 민족통일」이란 주제로 열린다.

이번행사는 불교의 쉽고 바른이해와 불교의 근본정신인 五戒를 說함으로써 불교의 철학을 내려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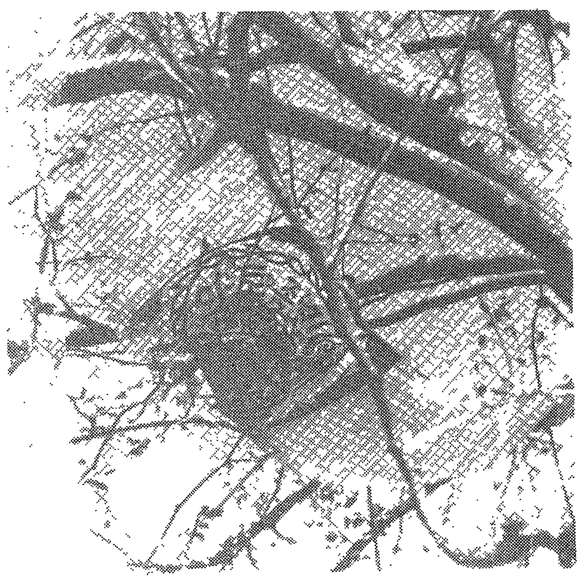
교수협의회 "胎動"

오는 28일 「창립총회」

교수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에 앞서 지난21일 본관 학처장회의실에서 金泰俊(일문과) 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모임을 갖고 창립총회에 관한 세부사항의 논의와 함께 14일 전체교수에게 전달한 바 있는 회칙안에 대한 수정건의안을 축조심의, 7개조항을 수정하였다.

한편 교수협의회의 창립총회는 오는 28일 오후4시 동국관(L301)에서 열리게 되며, 이날 총회에서는 결성준비위원회측의 그간 경과보고와 함께 교수협의회의 位相과 방향을 설정하는 회칙안의 심의및 통과, 회칙규정에 따른 임원선출(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등이 있게 된다.

카메라 단상



걸렸고나 걸렸고나/형극의 창살대신 나무가지에/푸른 창공에 선 너보다 땅에 선 내가 처량한 세상/네가 뉘 짓에 그러하냐 숨어사는가 민·족·통·일/갇혀사는가 민·족·통·일/고개를 들어 너를 부르마 살아서 만날 너!

<글·사진=지희현記者>

朴…金…보통사람, 그리고 철새들의 전성시대(?)

회전무대

보통사람 財産치고는

○…친구와 그동생이 처한 곤경을 거울삼아 무엇보다 청렴성을 내세우려는 보통사람(?)의 처세술이 世人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고.

특히 최근 대학가를 비롯, 사회일각에서 金氏부부 소환조사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내 재산은 이것 뿐이오』라고 공개하는것은 상대적 평가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듯한데.

그러나 朴氏를 최고로 알았던 국민들, 「정의사회 구현」에 全氏에게 기대와 신뢰를 걸었던 국민들 모두 낭패에 그들의 알맹이(?)를 알고 크게 실망하였음을 비추어볼때 얼마나 기대에 부응할지는 미지수.

보통사람(?)의 재산이 5억이넘는것을 보면서 크게 놀란가슴인데 『집이 2억 5천만원, 1만여주 소유한 선친묵(?)의 보통사람 시대가 오길 학수고대하는바입니다요. 아울러 신임토표를 특별한(?) 심정으로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그려.』

철새가 물어온 박씨(?)

○…철새들이 날쪽에서 날아들고 있는 이때, 이땅 여러곳에서 놀부의 박씨(?)를 물고 다니는 철새들이 너무많아 화제거리.

그것인즉 다름 아니고 정치철새들의 글품을진데 그 돈이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어떤돈을 갉아먹는지나 알고 드시는게 현명할듯.

하여튼 지조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이리저리 떠지어 다니는 철새들을 의사당 밖에서 나가놀도록 만들어야 할텐데, 이번엔 국민들의 철퇴를 내려야겠지요.

일방통행은 어디로

○…개강과 함께 큰 변화였던 후문앞 일방통행 실시가 어느새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하게 準가두진출(?)할수있던 것을 반가와하던 학생들이 다시 불안속에 등하교 하고 있다고.

本회전무대주, 일방통행을 어렵게 쟁취한후 고사까지 지냈던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쟁취한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권리의 주장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요』

캠퍼스의 쓰레기잡화(?)

○…4월 東岳의 봄은 때맞게 꽃방울을 터뜨리는 꽃들과 따스한 햇살등으로 싱그런 젊음으로 활기차기만 하건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꽃꽂이 찌꺼기처리장(?)으로 눈살이 찌푸려져.

잔디·벤치 심지어 분수대까지 휴지통으로 착각하는 일부 코끼리들이 지성인이라는 단어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데….

이를 보고 스과그군은 『주인의식의 실종이 이러한 악습을 버리지 못한것이 아니냐』며 『매주 쓰레기줍기등 캠퍼스 정화운동(?)이라도 펴야겠다』고 꼬집기도.

뒷걸음치는 행정

○…온방울 학교행정이 당면요구에 미처 따라가지 못해 여기저기서 불평이 일고 있는데….

신학기 신규씨를인가가 써를실부족으로 생각중이라든가, 진흥관 조경사업이 의대공사를 빌미로 흙더미채로 싸여있는 것등이 그것으로 「생화중」 또는 「연기」 답변으로 얼버무린다고.

이에 「과 브문은 『삼월하달식 캠퍼스행정에다 주인은 뒷전에 두고 생각하고 연기하다보면 언제 일하느냐』며 개탄.

산뜻하고 순수한게 좋아!

진로와인쿨러

수없이 많은 마실 것 중에서 젊음이 찾아낸
최상의 맛 진로 와인쿨러!!!
더 산뜻하게 더 순수하게 이 젊음을
즐기고 싶다.
바로 젊음의 맛— 진로 와인쿨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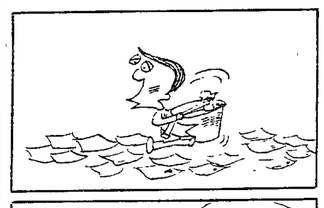
- 전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와인쿨러는 원액 100% 천연 과일의 싱싱함과 탄산의 상쾌함을 잘 조화시켜 더욱 산뜻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순수 와인입니다.
- 진로 와인쿨러는 6도의 순한 와인으로(기존 와인 12도) 독한 술이 부담스러운 분과 여성들에게 알맞는 부드러운 술입니다.
- 차게해서 드시면 맛과 향이 더욱 좋읍니다.(8℃~12℃)

株式會社 眞露

여로니 고

오 황

<62>



독재의 거리

김학민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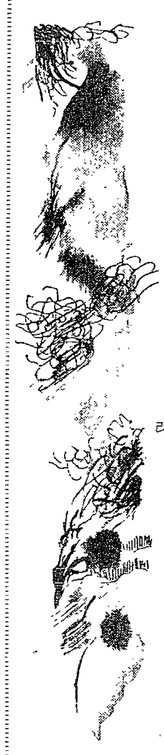
새책안내

유럽에 망명중인 칠레 영화감독이계 엄령하의 조국에 잠입, 칠레에 관한 모든기록을 적은 「독재의 거리」가 학민사에서 출간되었다。「돌아갈 수 없는 고향」「추억의 거리에서」등 총10장에 걸쳐 르뽀형식으로 엮은 이 책은 빈민가의 생활, 계엄령하의 민주화운동등이 변장술로 본 모습을 감춘 한 감독을 통해 생생하게 전개되어지며 군부독재 국가의 파탄과정도 잘 나타나 있다。

<학민사刊・160面・2천원>

살풀이

낮은 어둡고
밤은 깊어
이 한 몸 추스릴 한줌빛의 땅마저 없는건가
늘 낮은 포복으로 헤집어 오던 확신의 몸짓
조명등 아래 흐드러지는 나신 (裸身) 으로
형체조차 알 수 없네, 아득한 그리움
삶의 밑바닥을 두레박질하던
짧은 혀의 재빠른 난무질들
부풀어 오름의 상승기류에
위태위태 그러나 포만감인지 식곤증인지
자꾸 부풀어 풍풍 풍선 펑
고막이 터지는 아픔보다
발밑의 허공은 더욱 아련한 어둠인데
무엇이라 이름 붙일까
사물에 이름짓기, 신선한 단어찾기
조여오는 사방벽
무엇으로 장식할까
그리운 모습들 여기저기 흩어진 실밥처럼
흩날리는데 그 어느 하나 피멍울 자국
찾을 수 없어
장단없는 타령, 헛김 빠지듯
비껴 다문 이빨새로 구토하는구나
객토하는구나
찬란하여라, 말로 말을 일으켜세우던 날들
간혹 흙바람 부는 날은 언덕 조심스레 넘나들며
땀내 향수 온 몸에 속절없이 뿌리다
한시절 유행 색색기지 쪼가리 맞춤세일
표정없어 늘 평안하더니
누추한 이목구비
이제야 드러나는구나



꿈으로만 먹어오던 그리하여 가상적만 상대하던
전장 (戰場) 판 놀이
적과 적의 오우버 랩
네 적은 누구이냐
뒷통수를 치는 기습은 타격이 큰법
이러쿵 저러쿵 여차 여차
몸에서 튕겨 나오는 소리 들어야 할 때
늘 이렇게 다리 놓고 다리 건너
손가락질 해
아픔은 저만치서 포우즈 취할 뿐, 끝도 없이
자유부동하는 먹물처럼 발뚝 박은 한 평 땅
으로 누워 온 우주를 재판하느냐
한치 삶을 에누리없이 본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두려움에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가
저린 육신 마디 마디에 피맺히듯 박히던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구호만을 다스려 오더니
이 한몸 가누기마저 부끄러워
소식 묻는다 무사안녕—유사불편
그렇구나, 아픔으로만 떠오른다, 살아 오른다
삶의 부피, 그 싸움의 깊이,
통한의 가슴으로 치받쳐 더욱 더 정확히
헤쳐진 부끄러움, 화들짝 열려지는 그리움,
다시 불로 불을 놓아 한 겨울밤의 열기처럼
그러나 탄탄한 두 발로 펄떡
그 모든 고난의 무게, 무게로 끌어안아
정성껏 들어올려
이 땅 밖으로
밖의 밖으로

李 萬 根

(대학원 박사과정・철학과)

메아리

▲누구나 다 아는 바대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이란 구호는 4・19혁명 직후인 61년5월5일 전국의 17개 대학이 참가한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결성 준비대회에서 나온 말이다。이 기념비적인 외침은 민주당 정권을 당혹하게 만들어 5월10일 장면총리로 하여금 남북학생회담 불허방침을 천명하게 했으며 보수세력과 군부를 초긴장시켰다。그런 가운데서 5월13일 「남북학생회담환영및 통일촉진 궐기대회」가 거행되었으나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좌절감을 맛볼 수 밖에 없었다。

▲이와 일맥상통한 움직임이 서울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후보였던 김중기・유재석君이 처음으로 「김일성대학 청년학생에게 드리는 글」에서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국토순례대행진」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체육대회」와 8월15일 판문점에서 만나 한판 대동제를 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이에 대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총장의 공동명의로 된 답신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의 접수거부로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후 얼마 안있어 서울대 총학 산하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명의로 된 대자보가 본교에도붙었는데 내용은 앞서의제안내용과 거의 유사하다。▲이런 학생들의 주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을 준다。왜냐하면, 그와같은 주장은 현체제하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실정인 듯 싶기 때문이다。또한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동포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는 징표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일천만이산가족을 생각할 때 이들의 주장이 다소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점이 있다해도 가상하기 그지없다。

▲스무 일곱해만에 다시 역사가 반복되는 듯 싶다。하지만 그동안 많은 현상이 바뀌었다。항상 적으로만 생각되던 공산권국가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으며 얼마 안 있어 「세계인의 축제 (?)」에는 공산권선수들까지도 참여한다고 하지 않는가。또한 현정부는 누누이 북한동포의 참여를 권하고 있지 않은가。이렇듯 많은 상황이바뀌었음을 쉽게 감지 할 수 있다。과연 통일을 위한 학생들의 주장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煥>

統一 논의

교수투고 회임기간

작년 6, 7월 노사대립의 격렬한 양상이 최근 춘투라는 이름으로 재현되면서 매스컴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있다。작년 노사대립의 조정을 통해 현재야 많은 개선이 되어있지만 아직 생활전선속에서 자신 혹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작업시간과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는 그들의 생활을 볼때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생활이 학생들과 상이하며 (물론 학생중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이한 사회적 배경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때문이리라。

회사와 캠퍼스, 직장과 도서실, 작업장과 강의실, 생산현장과 이상・낭만등 서로 이질적인 모습이 교차되면서 대학생활의 의미에대한 현실적인 의문이 떠오르는것은 대학에 몸담고있는 사람으로 현실과의 관계설정및 존재분석이라고나 할까? 물론 4년이라는 교육기간이 지니는 의미는 다양하게 제시되어왔고 주장되어지겠지만, 나는 이 기간을 경제학적 용어로 회임기간이라 표현하고싶다。보다 크고 많은 실력과 결실을 얻기위해 많은 비용과그 기간동안 생산할 수 있는 물질적 가치를 희생하면서 4년간의 투자기간 즉 회임기간을 보낼때 사회가 대학인에게 부여해주는 많은 특혜 (학력에 의한 제도적인 차별등) 를 향유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인이 반드시 자아반성해보고 정립하여야 할점은 사회가 부여하는 특혜를 과연 받을만한 존재인가이다。인간의 기본적 속성은 쾌락주의 (Hedonism) 적 입장에서 파악한다면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고통의 댓가로 미래의 더 큰 즐거움을 얻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제기된다。이선택에서 대학생활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각 대학인의 주관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의 문제이지만 「대학이 사회를 선도하고 지도해야 할 중추적인 엘리트를 교육시키고 사회의 중견 관리층을배출시킨다」는 사회적 여건에서 볼때 이기간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추구하는 회임기간으로써 대학인은 이 기간을 열성적이며 성실하게 투자하는 회임기간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대학인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추구, 사회를 선도한다는 사명을 갖고 회임기간을 열성적이고 성실하게 보내야 한다

대학인의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 즉 사회의 각 지위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과 책임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장에서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의 마음가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자신이 장래에 담당할 사회적 지위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및 책임의식을 함양해야 하지 않을까?

Campus가 점차 계절의 화려함으로 뒤덮이는 이 때 사회의 모든조직과 기능이 그에 합당한 지와 덕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회임기간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뛰어든 산업전사들보다 미래의 진실된 사회 중견층이 되기위해 더욱 성실하고 의미있게 이 기간을 채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또한 사회활동을 할 때 자신의 대학생활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않은 좋은 회임기간이었다고 회상하는 동국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자세로"

박 병 식

<법정대교수・계량행정론>

신입생 수필

새로운 출발에의 빵빠레

4월의 캠퍼스는 이제 봄의절정에 와 있는듯하다。캠퍼스 여기 저기 만발하고 있는 성숙한 꽃들의 인사, 잠깐의 봄비에 씻기운 산뜻한 남산의 기운, 그리고 잔디밭에서, 분수대에서 들려 오는 동국대학인의 즐거운 웃음소리들!

아! 벌써 내가 그 낯설던 막걸리와 휘청거리는 만남을 한지도 어언 두달이 가까와 지는구나。

그러나 그 두달은 내게 있어 돌풍 같은 나날들이었다。무척 빠르기도 했고 수많은 세계로의 길을 한꺼번에 소개받느라 나의몸과 마음은 때론 지치고, 기쁘고, 슬프고, 끊임없이 바뀌어 하나의 감정 속에 안주할 줄을 몰랐다。

그랬다。확실히 그랬다。

大學은 내가 그 암울한 사춘기 그어느 순간에 그리던 자유가 있었다。그러나 그 자유는 어떻게 누려야하는 것인가? 우습지만 이건 내게있어 새로운 문제였다。무엇보다 내게 주어졌던 여러번의 선택의 순간들은 날 당황시켰다。대학 벽보판, 아니, 접착시킬수있는 부분같아 보이는 모든부분에는 써클 가입, 광고문, 호소문등이 수없이 붙어 있었고, 난 그걸보면서 아연해지기까지했다。또한 서로에게있어 「옳은것」을찾는 방법 또한 가지가지였다。

大學이란, 한테두리 안에서 아무도 『네 갈길은 이것이다』라고 특정지워 주는 이는 없었고, 모든 것이, 심지어 강의 시간 출석조차 자유 의사였다。때론, 교수님의 강의는 실망스럽고 공허감마저 남길 때가 있었다。여하튼, 난 한꺼번에 온 자유 속에, 오랜 습성과 타성으로 인해 융합되기 힘들었다。

며칠전, 총학 출범식때 최루탄 연기를 맛보았다。그렇게 서럽지 않고, 고통스럽게 울어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고등학교때 구경만 했던 학생 데모! 大學은 왜 이리 복잡하고 어려울까?

하지만, 내게 있어 大學이 준 확실한 명제는, 대학은 인간대 인간의 만남의 장소라는 사실이었다。내가 태어나서 만나왔던 제한된 사람들의 수에 비해 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가슴 부푼다。

선배와 후배, 교수와 학생의 관계에 있어 대립적인 면보다 본분을 지킴으로써 생겨나는 인간적 유대를 맛보고 싶다。

어느덧, 라일락 꽃잎도 피자마자, 아니 한쪽에서는 피고 있는데, 지고 있다。짧은 봄의 생명이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머잖아 학교 캠퍼스는 다가오는 5월에 더한층 풍요로와지겠지。

난 다짐해 본다。

大學에서 배울수 있는 것들을 될수 있는 한 많이 배워가리라。

학생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정당하고 당당해지리라。

"서서히 그 돌풍같았던 두달에 기안녕의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 다오는 5월을 좀더 성숙된 모습으로 맞이해야겠다。나의 미래와 진정한 출발을 위하여…"

어본다。

마은영 <사범대 국교과>

알 팁

文化部에서는 993號 (5月3日字) 에 실릴<대학가 新풍속도>에 관한 여러분의 재치있는 글을 모집합니다。대학가 주변, 혹은 대학內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세태들을 원고지 5~6매 내외로 투고하여 주십시오。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가 지급됩니다。

마감 : 4月30日 오후5시

社告

제26회 高校生 文學콩쿠르 작품모집

本社에서는 全國의 남・녀고교문학도들을 대상으로 창작의욕을 고양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한국문학을 주도해 나갈 文才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26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를 개최합니다。매년 문학도를 발굴해온 가장 권위있는 이 향연에 많이 참가하여 영광을 누리기 바랍니다。

◇작품모집 종목

▲詩・時調……3~5편 이내
▲小 說……200자원고지 50매내외
▲수 필…… 〃 15매이내

◇응모자격

고교생의 작품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작품

◇시 상

▲각 종목별로 壯元1편, 우수작2편, 가작2~3편을 뽑아 상장및 부상을 수여함
▲1차예선 원고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도 상장을 수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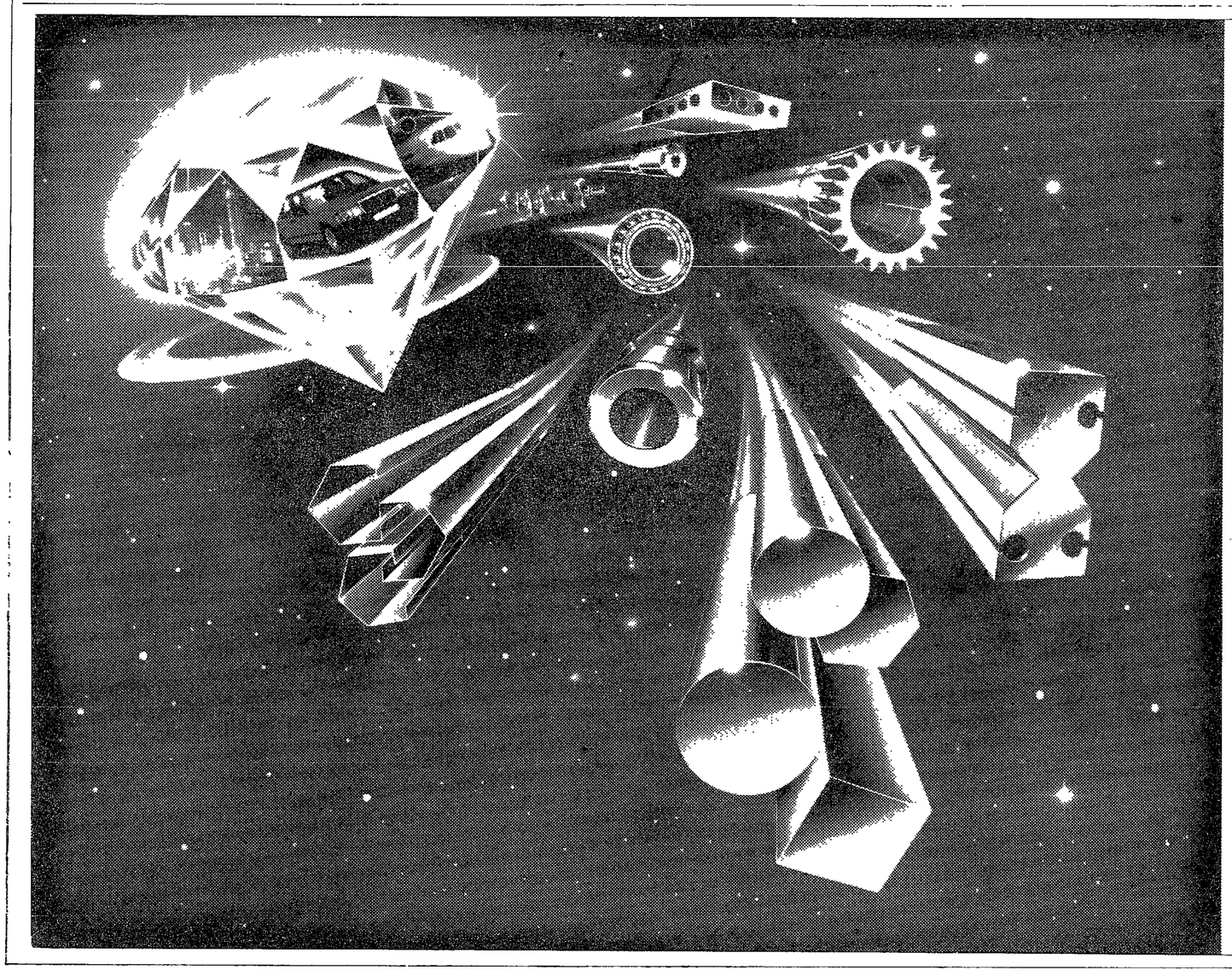
◇입상자특전

▲각 종목별 장원입상자 (1등) 가 본교 어문계열에 입학한 경우 당해 학년도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함
▲각 종목별 우수작 입상자 (2등) 가 본교에 입학할경우 당해학년도 1년간 수업료반액을 면제함
▲재학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는 총장장학금, 문예장학금등을 받을 수 있음。

◇작품제출기간

1988년 4월21일~4월30일

東大新聞社



미래를 만드는 철의보석

三美특수강

삼미가 생산한 연간 100만톤의 특수강이 세계철강 산업의 미래를 열고 있읍니다.
철의 보석이라 불리는 특수강을 생산하는 삼미특수강이 하는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 규모의 특수강 제조업체이면서도 일반소비재가 아닌 국가기간 및 핵심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용 기초소재、전략산업소재 생산에만 주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원자로까지 소재 생산에 주력해온 삼미특수강은 3,000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로 합리적인 공정시설 및 설비확장을 통하여 이제 명실공히 연간 100만톤 규모의 특수강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특수강 메이커로 성장하고 있읍니다。

설비증설 및 현대화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높여 국제경쟁력에 앞장서겠읍니다.
34년의 저력으로 오로지 특수강분야에만 매진해온 삼미특수강—
K.S、서독TÜV、일본JIS、노르웨이 DnV 등의 인증을 획득 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읍니다。
이제 국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체질을 다지고 있는 삼미는 설비의 현대화 및 대형화를 꾀하고 있으며 공급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해 제품의 고 부가가치 창조에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철강한국의 미래를 개척하며 사회적 책임도 더욱 키워 나가겠읍니다.
특수강소재의 100% 국산공급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삼미특수강은 오늘도 미래의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첨단소재생산、신소재 개발에 끝없이 도전하기 위해 부단한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이룩하고 있읍니다。
사회를 위한 기업・국민을 위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삼미특수강 — 철강한국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보람으로 계속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 삼미 특수강이 쓰이는 산업분야
• 특수강봉재 각종 차량, 자동차, 항공기엔진, 전기전자기기, 발전설비, 원자력산업장비 등의 주요부품소재, 볼트 너트, 베아링, 공구, 금형의 소재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건축 내외장재 자동차부품 및 외장재, 주방용품, 옥내외 위생배관재료, 각종 화학용기, 의료설비, 각종 레저시설용 소재 내외장재.
• 무계목강관 정유・화학공업설비, 식품가공설비, 도관배관설비, 원자력발전설비소재 등으로 1987년 현재 7천300여 강종을 개발
• 특수금속 및 특수합금 항공, 원자력, 특수산업 등을 위한 각종 고온・고강도 내식재료, 전자・화학산업의 특수 소재
• 개발중인 미래의 소재 경량화・고급화에 따른 자동차소재, 고광택스테인리스 강판등 건설 및 건축용 신소재, 높은 부가가치의 전기・전자산업소재, 각종 원자력발전용소재, 첨단의료 및 인체재료용 소재

산업사회를 튼튼하게 가꿔가는
三美綜合特殊鋼株式會社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5-34 TEL.583-6911.584-6911